

책뜰

책과 함께 숨쉬는 곳

Vol. 1 | 2020. 11





contents

책이 머무는 곳 — 책들

Vol. 1 — 2020. 11

발행일 2020년 11월 20일 발행인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장 발행처 청주시도서관평생학습본부

주소 청주시 상당구 용암로 55 전화 043-201-4086 팩스 043-201-0689

홈페이지 <http://library.cheongju.go.kr> 디자인 디자인 오브

2020 이슈 & 토픽

02

코로나19 상황 속 국외 도서관
제공서비스

06

청주 도서관계 이슈

도서관과 사람

24

책읽는청주 선정작가 깊이 알기

28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림책 안으로

32

17살의 나에게 내가 청소년
소설을 쓰는 이유

36

나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독서의 힘

40

100년을 바라보는
청주 공공도서관의 역사

44

품앗이 육아 독서동아리에서
논술 선생이 되기까지!

도서관과 책

46

팬데믹 이후 중년 백수의 품격
있는 오늘을 살기

48

책으로 소통하는 열린공간
슈테판 츠바이크의 ‘초조한 마음’

50

현명한 엄마 되기 연습 -
『왜 아이에게 그런말을 했을까』
를 읽고

51

누구에게나 필요한 위로,
희한한 위로 희한한 위로를 읽고

54

코로나 블루, 다시는 만나지 말자!
우울감 공약을 위한 열 권의 책!

도서관과 공간

56

외국도서관 탐방이야기

64

푸름이 베란다 의사

66

책으로 소통하는 열린공간
‘청주열린도서관’

언택트 Untact 시대 도서관의 노력

코로나19 상황 속 국외 도서관 제공서비스

글 박주현

전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강사

19세기 세계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던 철강왕 앤드류 카네기는 지역사회를 위해 가장 필요한 자선활동이 공공도서관 건립이라고 생각했다. 도서관에만 6천만 달러(현 가치로 1조 8천억원)를 기부한 그는 미국에만 1,785개의 도서관을 지었으며, 세계적으로 2,509개 도서관 건립에 기부금을 제공했다. '도서관은 계층이나 공직의 유무, 재산 정도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민주주의의 요람'이라고 말한 그는 도서관을 정보의 형평성과 시민의식 향상이라는 가치를 가장 잘 실현시키는 공공기관으로 인식했다.

그리고 21세기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없는 재난 속에서 카네기의 신념이 다시 빛을 발하고 있다. 언택트 시대라는 새로운 환경변화 속, 지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계도서관의 다양한 시도들을 살펴보자.

1 호주. 클릭과 수집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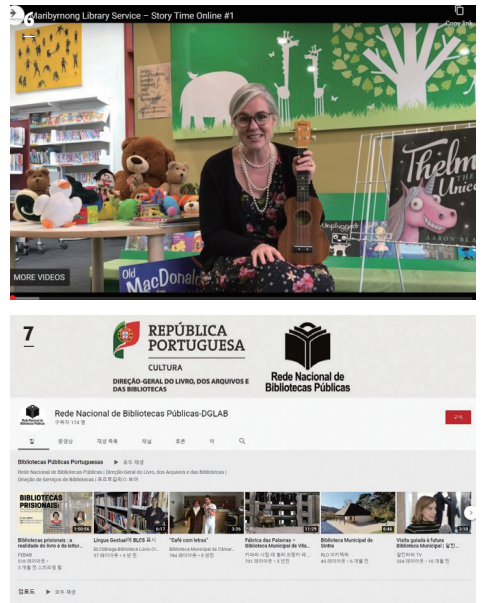
2 에티오피아. 낙타도서관

3 캐나다. 테이크아웃대출



도서관 폐쇄 상황에서 새로운 대출방식 모색

대부분의 나라에서 도서관 건물을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가운데, 여러 도서관들은 이용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대출방식을 모색했다. 가장 대표적인 대출 서비스는 클릭과 수집[Click and Collect]이다.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온라인(또는 전화)으로 자료를 예약하면 다양한 방법으로 대출해 제공하는 것인데, 한국에서 시작하여 전세계에서 유행하게 된 드라이브 스루 Drive-through 대출을 포함하여 그리스의 베리아 중앙 공공도서관 Veria Central Public Library은 택시 회사와 협력하여 자료대출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일본 오사카 중앙 도서관은 우편으로 자료를 배달하였다. 에티오피아에서는 고립된 아이들을 위해 낙타 도서관을 운영하기도 했다. 물론 대출반납자료는 소독과 자료 격리 등 개별 국가가 정한 코로나19 확산방지 절차를 따라 철저히 관리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미국 오클라호마 도서관은 최신정보를 접하기 힘든 장애인들을 위한 '전화로 읽어주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자의 요청이 오면 자원봉사자들이 오클라호마에서 발행되는 신문에 실린 지역의 관심 뉴스, 판매 광고, 부고소식 등을 전화로 읽어준다. 캐나다의 코퀴틀럼 도서관은 돌봄공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유아가정을 대상으로 지역 내 공원을 순회하는 야외 동화구연 이벤트인 '움직이는 이야기 시간 story time at park'을 운영하여 가족간 애착 증진과 영유아의 읽기능력 향상을 지원했다.

디지털 콘텐츠 확대 노력

코로나19 격리상황에 따라 디지털 자료가 많이 이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접근을 위해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하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전자책의 종류와 권수를 확충하거나, 이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한

다. 작가나 출판사에 저작권 문의를 거쳐 온라인으로 책읽어주기 영상을 제작하기도 하고 작가를 초청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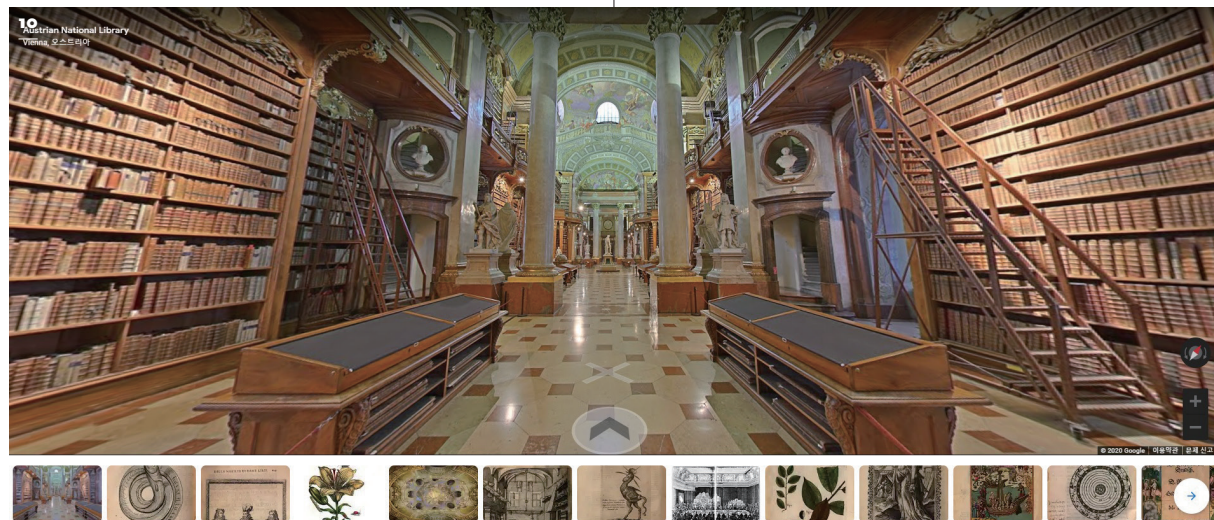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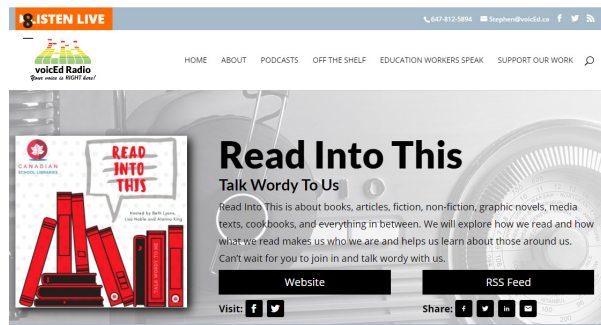
핀란드 공공도서관 협회와 출판사 협회는 지난 4월 22일 모든 공공도서관이 2달 동안 저작권이 있는 문헌과 이미지를 담은 동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제작된 자료는 핀란드 국립도서관 채널과 헬싱키시의 공식채널을 통해 제한적으로 배포되고 있다. 호주 문헌정보협회는 호주출판협회와 호주작가협회의와 합의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작권 허가 절차 없이 공공도서관에서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온라인 동화구연 story time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저작권 확대를 통해 호주의 도서관들은 다양한 SNS채널(페이스북, 유튜브, 비메오)을 통해 온라인 동화구연을 실시한 또는 영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포르투갈 국립 도서관은 공립도서관과 학교도서관에서 저작권 문제없이 온라인 스토리타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튜브 채널을 개설해 운영하였다. 이는 어린이의 리터러시 literacy(읽고 쓰는 역량; 활용 역량) 향상과 책을 좋아하는 태도를 형성시키기 위한 국가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온라인 독서방송 제작

캐나다 학교도서관은 voiceEd Radio와 함께 'Read Into This' 팟캐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전 세계의 많은 사서와 도서관 직원들은 라디오와 온라인 라디오 방송을 제작 및 지원하고 있다.

뉴욕공공도서관과 뉴욕공공라디오는 뉴욕 시민의 공동체 의식과 독서 즐거움을 위해 온라인 독서 방송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유튜브와 홈페이지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한 라디오의 주중 방송인 예술문화쇼 '을 오브 잇' All of it의 월간 독서모임 갯 릿 Get Lit에서 가상독서모임의 책을 선정하면 뉴욕공공도서관은 자관의 전자책 애플리케이션 심플리이 SimplyE를 통해 수천권의 전자책을 무료로 대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도서관 시설과 자료의 3D뷰 제공

도서관의 3D 뷰 제작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있었지만 최근 도서관 시설의 임시 폐쇄로 인해 더욱 주목받고 있다. 미국, 영국, 포르투갈, 체코, 아일랜드,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인도, 필리핀, 일본, 멕시코, 폴란드, 스페인, 태국, 이탈리아, 싱가포르의 도서관은 구글의 예술과 문화 Google Arts & Culture에 자관의 3D 도서관 뷰를 제공하였다. 도서관 3D 뷰는 도서관 공간을 걸어가는 기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특정한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담긴 이미지 자료도 제공한다.

8 캐나다. 학교도서관 팟캐스트

9 뉴욕. 공공도서관 라디오방송

10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 3D 가상뷰



11 뉴욕. 전염병 다이어리 프로젝트

12 미국립의학도서관. 코로나 정신건강 컬렉션

13 호주. National simultaneous story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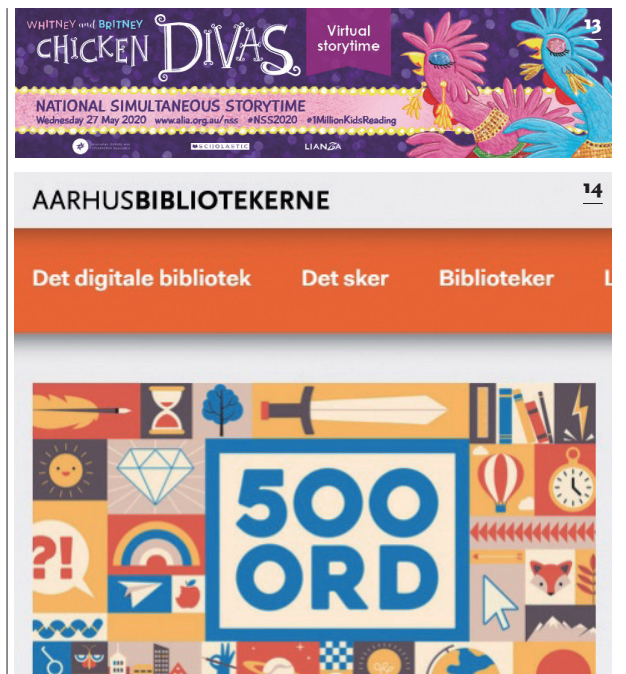
14 덴마크. 온라인 독서축제

코로나19 인한 정신건강 치유를 위한 서비스

뉴욕공공도서관은 8월 2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와 관련된 이야기를 수집, 보존, 접근가능하도록 '지금의 역사 : 전염병 다이어리 프로젝트'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시민들로부터 자신들이 겪은 다양한 삶의 이야기를 오디오 파일로 제출받아 수집함으로써 재난상황 속 개개인이 어려움을 표현하며 위로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아카이브화으로써 지역의 기억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긍정적인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스트레스와 걱정 등에 대한 다양한 주제별 문제를 다루는 책과 자료를 수집하고 제공하고 있다.

책으로 하나되는 온라인행사 운영

호주는 국가적 한 책 읽기 행사인 'National simultaneous storytime'을 진행하여 호주 출신 작가와 삽화가의 어린이 책을 선정해 도서관, 학교, 유치원,



보육원, 가정, 서점 및 전국의 여러 곳에서 선정된 책을 동시에 읽는 이벤트를 진행했으며, 덴마크 오르후스 공립도서관에서는 온라인으로 시 낭송, 숙제 도움 서비스, 작문 대회, 공개 토론, 음악 퀴즈 등 독서축제 행사를 개최하였다.

형평성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 도서관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나라에서도 고등교육을 졸업하고서부터 죽을 때까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도서관밖에 없다. 도서관은 시민들이 지식과 정보,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가장 보편화된 공공 시설물인 것이다. 코로나 사태를 맞아 도서관은 지식격차와 정보소외 등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모색하고 있다. 강철왕 고 앤드류 카네기뿐만 아니라 에스콰이어 회장 고 이인표 그리고 빌 게이츠 등이 도서관에 투자한 이유, 그것은 도서관이 시민들의 형평성을 보장하는 최고의 공공기관이기 때문이다.

멈춤이 없는 청주시 도서관!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서비스 운영

코로나19로 인해 청주시 도서관, 박물관 등 공공기관의 출입은 제한되었지만 시민들의 책에 대한 애정과 독서에 대한 관심은 멈출 수 없습니다. 커피나 햄버거 전문점에 서만 운영되는 줄 알았던 드라이브스루를 도서관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청주시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코로나19에 지기 싫은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비대면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북 드라이브 & 워킹 스루 운영

사전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읽고 싶은 책을 미리 신청하면 도서관 정문 앞, 주차장 등 각 도서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책을 받아가는 도서예약대출 서비스로, 총 77일간(3.13 ~ 5.15 / 8.25 ~ 9.20.현재) 4,823명이 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일평균 189권 대출)

*임시휴관 기간 중 한시적 서비스



임신부대상, 무료택배대출 서비스

코로나19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친 예비맘(임신부)들을 위해 안전한 태교를 할 수 있도록 청주시 도서관이 지원합니다. 집에서 무료로 책을 받아볼 수 있는 도서대출 택배 서비스!!

청주시도서관 회원증을 소지한 임신부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중한 우리 아이에게 최고의 태교인 책읽기를 선물해주세요.



책읽는청주? 책들은 청주!

23회를 맞이한 2020년 책읽는청주!

2006년 가을 처음 시작된 시민독서운동인 책읽는청주가 올해는 코로나19 등 급변하는 사회환경에 맞춰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며 시민과의 눈맞춤을 시도했다.

북튜버Booktuber가 소개하는 책읽는청주

그동안 지면으로만 이뤄지던 후보도서 소개를 북튜버와 함께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공개하였다. 단조롭게 읽기만 해야했던 방식에서 벗어나 쉽게 보고 듣는 방식으로 변화하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소통채널을 확대하였다.



다양한 매체의 대표도서 구입

전자책, 오디오북, 큰활자 도서 등 매체를 다양화한 대표도서 구입으로 언제 어디서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모바일 기기로 내 손안의 책읽는청주를 만나게 되었다.

전자책· 오디오북	역사의 쓸모· 뉴스, 믿어도 될까?	PC, 모바일 이용
큰활자도서	역사의 쓸모· 안녕, 나야 미호종개(구입중)	자료실 비치

코로나가 만든 랜선 모임!

언택트Untact 공감토크 & 함께읽기 챌린지

코로나19로 일상에 큰 변화가 생겼다. 직접 만나 같은 책을 읽고 소통하던 공감토크가 안전과 건강을 위해 유튜브를 통한 생방송으로 이뤄지고, 함께읽기 챌린지를 통해 릴레이 독서가 지속되고 있다. 참여시민이 함께 소통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힘든 시기를 이겨내는 모습으로 한권의 책으로 하나되는 책읽는청주의 참된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다.



새로운 시도, 청주 아이러북 LoveBook 브랜딩Branding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은 2011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10년째 아기들과 생애 처음 책 읽는 기쁨을 나누고 있는 독서운동입니다. 청주에서 아기를 낳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를 하면 그림책 2권이 들어있는 책꾸러미를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림책은 아기와 양육자에게 그림책을 보고, 읽고, 만지면서 상호작용으로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서로 소통하고 교감함으로써 그림책 육아를 시작할 수 있게 합니다. 올해 코로나 19 상황에서도 대면 활동은 줄었지만, 아기들의 책 읽기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시민 영유아독서운동 명칭공모

아기와 함께하는 책사랑 운동이 청주시민의 명칭공모를 통해 『청주 아이러북(LoveBook)』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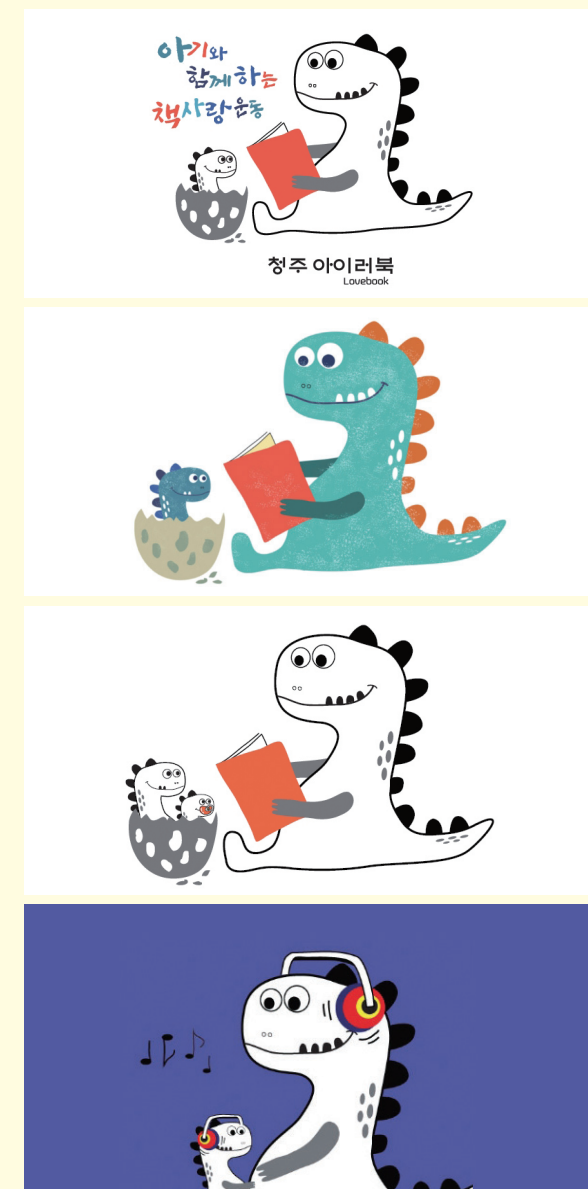
최우수작으로 선정된 청주 아이러북은 아이(영유아) + 러브(Love) + 북(BOOK)의 합성어로, 영아기 때부터 그림책을 접하고 놀이를 통해 책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도록 하여 아이가 스스로 독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주를 대표하는 독서운동을 의미 합니다.

(명칭 제안자: 조정현)



영유아 독서운동 상징물 제작

청주시 영유아 독서운동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새로운 상징 이미지 개발로 ‘책 읽는 도시’의 브랜드를 많은 시민에게 알리고자 상징물을 제작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룡(다이노사우르스)을 모티브로 친근하고 귀여운 형태로 캐릭터를 표현했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아기 공룡에게 자상하게 책을 읽어주는 부모 공룡의 모습으로 청주 아이러북의 의미를 나타냈습니다.



랜선으로 만나는 “청주 아이러북”과 책놀이

책놀이는 양육자가 책을 활용하여 아이와 놀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배우며, 또래의 아이들이 함께 모이고, 양육자가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게 됩니다.

출생 신고 시 선물 받은 첫 번째 그림책을 시작으로 권역별 공공도서관에서 운영하는 단계별 책놀이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책놀이는 매 차시 선정된 그림책을 읽고, 만지고, 음울을 반복하는 등 놀이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안전하게 집에서 zoom이나 네이버밴드를 활용해 즐길 수 있는 온라인 책놀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에 대한 홍보를 인형이 소개하고 자원활동가가 만든 책놀이 영상도 제작해 시공간의 제약 없이 다양한 방법으로 청주 아이러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소리책 들으러 오창호수도서관에 오실래요?

오디오북 체험공간 ‘소리내음’ 운영

청주오창호수도서관 1층 로비에 조성된

오디오북 체험공간 ‘소리내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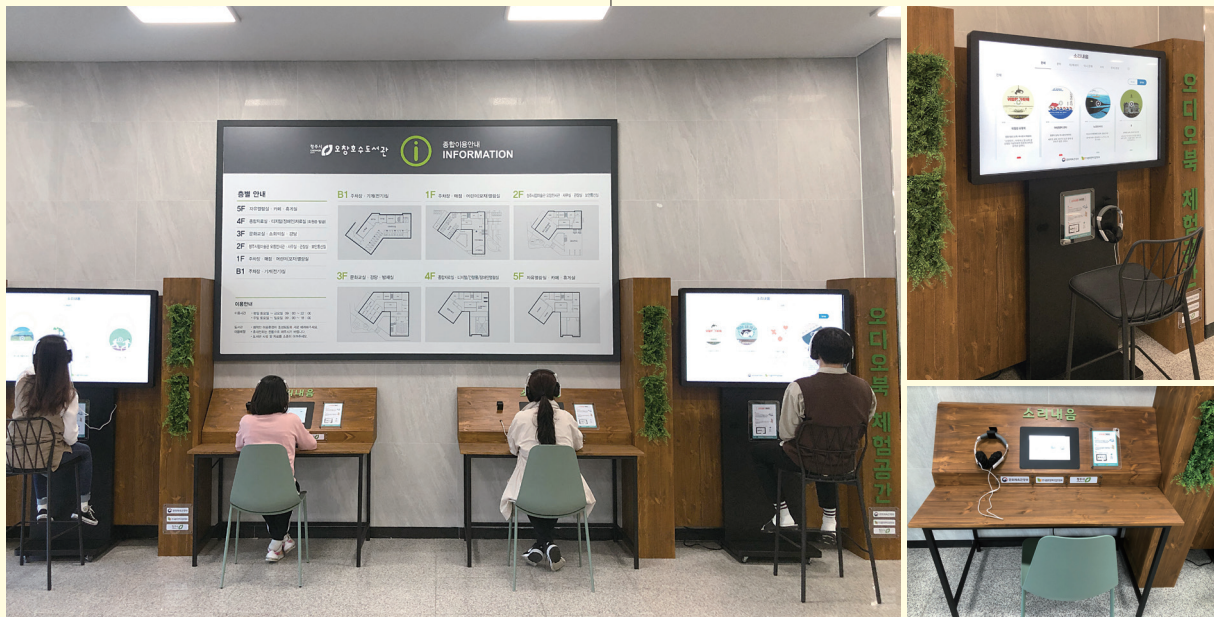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2020년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전국 5개 기관 중 하나, 충청권에서는 최초로 선정되어 10월 6일부터 오디오북 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 사업은 오디오북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오디오북 체험공간 운영을 통해 취약 계층과 비독서계층을 독서인구로 유입하는 목적으로 2019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디오북 체험공간 ‘소리내음’에는 태블릿PC와 키오스

크가 설치되어 배우, 가수, 성우, 아나운서 등 유명인의 음성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제작한 오디오북 100종을 제공하고 있으며 도서관에 방문하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자료는 총 8,636종(전자책 7,552종, 오디오북 1,084종)이며 코로나19 이후 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디오북 체험공간 ‘소리내음’이 청주시 도서관의 전자자료 이용 활성화에 발판이 되어 독서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주상당도서관의 웹소설 특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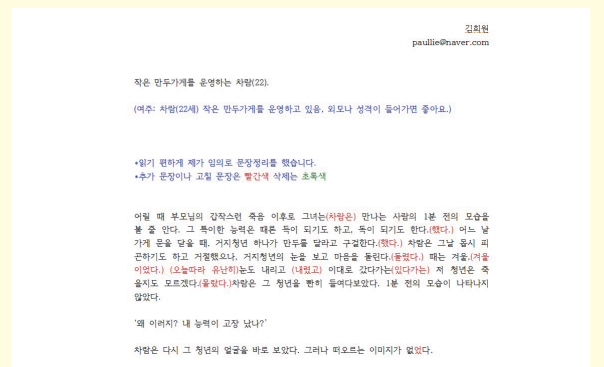
청주상당도서관에서 9월 독서의 달 특강으로 기획되었던 웹소설 특강이 9월 26일 종료되었습니다.

9월 16일 수요일에 대면 수업 방식으로 첫 개강을 앞두었던 웹소설 특강은 8월 23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도서관 임시휴관으로 갑작스럽게 줌(ZOOM)을 활용한 비대면으로 전환되었지만, 수강생들의 꾸준한 참석으로 16일(수), 19일(토), 23일(수), 26일(토) 총 4회에 걸쳐 진행된 특강은 평균 출석률 88%를 기록하며 성황리에 종료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특강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비대면 수업에서 활발하게 진행된 강사와 수강생의 의사소통으로, 2회차 수업에서 강사(엘리신 작가)가 내준 과제를 수강생들은 귀찮아하지 않고 모두 수행한 것은 물론 평소에 웹소설에 대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던 질문을 문서로 정리하여 함께 제출함으로써 특강 마지막 날 까지 활발한 소통이 이어진 것입니다.

강사가 내준 과제란 수강생들에게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던 스토리를 직접 작성하여 마치 출판사에 원고 투고를 하듯 작품 시놉시스를 제출하고 피드백을 받는 것입니다. 수강생 중 한 명은 직장하고 함께 취미 생활, 부업 형식으로 웹소설 출판을 꿈꾸고 있었는데, 엄격한 피드백을 받고 글을 한편 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특강이 완전히 끝나고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강사 엘리신 작가는 특강을 준비할 때처럼 바쁘다고 합니다. 열정이 넘치는 수강생들이 지금도 꾸준히 메일을 보내 피드백을 요청하고 있으며, 연재 작업이 바쁘지만 그들의 열정을 존중하며 그들이 당당하게 출판사에 투고하고 출판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고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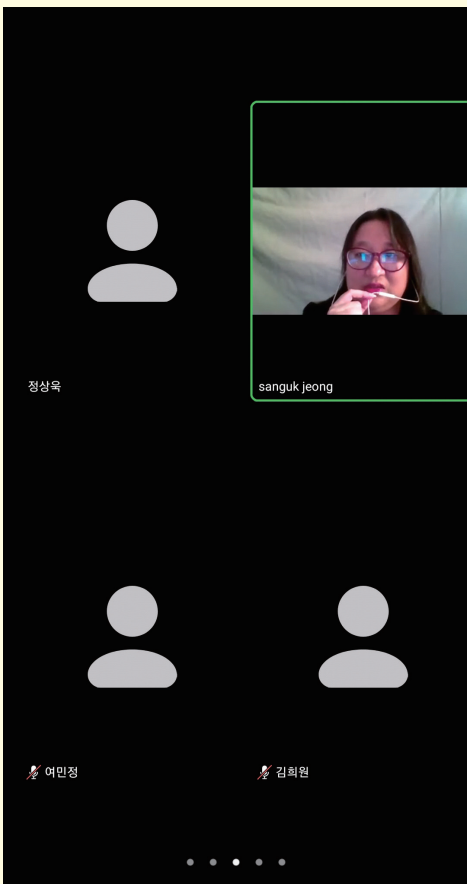


지난 7월 11일, 18일, 총 2회에 걸쳐 진행된 ‘청소년 진로 특강 웹소설 화상 강의’를 시작으로, 9월 독서의 달 웹소설 특강까지, 금년 청주상당도서관에서 기획한 웹소설 강의는 모두 끝이 났습니다. 혹시 11월이나 12월에 추가 특강이 없는지 문의하는 수강생이 존재할 정도로 웹소설 특강은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청주상당도서관에서는 이번 특강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 성인 대상 문화교실에 웹소설 강좌를 신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이번 특강을 진행한 강사는 물론 수강생들까지 대면 강의실에서 서로 의사소통을 나누며 비대면에서보다 더 풍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에서 매우 생소한 콘텐츠이지만 7월(출석률 93%), 9월(출석률 88%)에 걸쳐 성황리에 마무리 된 웹소설 특강. 내년에는 부디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고 강사와 수강생이 한 자리에서 열의를 불태울 수 있는 강좌가 될 수 있도록 청주상당도서관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청원도서관 「2020년 인문독서아카데미」

글 시민기자 신인실

열체크, QR체크, 손소독제, 마스크 착용, 적당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기이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청원도서관에서 그 사유가 시작되었다.

2020년 6월 22일, 청원도서관에서 인문독서 아카데미가 열렸다. 이번 인문독서 아카데미를 담당하고 있는 김주란 주무관이 강의 시작을 알리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했다. 인문독서 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최의 독서문화지원사업으로, 인문학 강의를 통한 전 국민 인문정신 고양 및 독서문화 증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매년 공공도서관, 문화원, 서원 등에서 지원한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중에서 심사를 하여 선정된 우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렇게 선정된 청원

도서관 인문독서 아카데미의 방향은 위기 극복의 인문학이며, 강좌명은 ‘재난을 배경으로 휴머니즘을 말하다’이다. 총 15차시에 걸쳐 진행되며 일곱 명의 전문 강사와 함께 철학·문학·환경·정치사회 분야의 관련 도서를 읽으며 재난을 뛰어넘는 지혜를 찾아가는 길에 들어섰다.

강의 첫날, 오창호수도서관의 박종철 관장도 직접 참석해 이번 강좌를 통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는 혜안을 얻기 바라는 한편 당초 수강 인원이 50명이었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성 때문에 20명으로 제한된 점을 언급하며 방역수칙을 잘 지키자고 강조했다. 수강생들의 모습은 기대와 함께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이번 강좌는 세 가지 화두를 던지고 있다.

첫째 죽음을 대하는 태도이다. 우리는 모두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재난’이라는 상황 속에 놓여있다면 죽음이 더 현실적으로 느껴지며 불안함을 유발한다. 이 불안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강의에서도 죽음을 다루고 있는 부분이 많다.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는 죽음을 정복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다. ‘눈먼 자들의 도시’에서는 이유 없이 전염되어 죽고, 아무 이유 없이 치료된다. ‘페스트’에서는 죽음과 맞서 싸우고 있다.

죽음도 삶이라면 모순일까? 죽음에 대한 불안함을 떨쳐내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 불안함을 자신을 움직이는 동력으로 활용한다면 이 얼마나 멋진가!

둘째 자유와 통제의 대립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부림지구 벙커X’에서는 재난을 빌미로 정부가 개인을 통제하는 모습에서 지금의 QR체크와 겹쳐졌다. 재난 상황

청원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 위기 극복의 인문학
재난을 배경으로, 휴머니즘을 말하다!

한 세계를 향하고, 인간적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바이러스가 인류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우리는 어떻게 이 재난을 극복할 것인가? 앞으로의 세계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청원도서관 인문독서아카데미에서 이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찾아보려고.

● 운영기간 : 2020. 6. 22 ~ 9. 28. 매주 월요일 10:00~12:00
● 장 소 : 청원도서관 대독학실
● 주최 주관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청주청원도서관
● 대 상 : 청원지역에 거주하는 시민 신청은 20명 이상(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 신청비 없음
● 신청기간 : 5. 25. ~ 5. 31.
● 신청방법 : 홈페이지 문화강좌신청란 (문의 04201-4123)
● 문의사항 : 04201-4123(문의) 04201-4124(문의) 04201-4125(문의) 04201-4126(문의) 04201-4127(문의) 04201-4128(문의) 04201-4129(문의) 04201-4130(문의) 04201-4131(문의) 04201-4132(문의) 04201-4133(문의) 04201-4134(문의) 04201-4135(문의) 04201-4136(문의) 04201-4137(문의) 04201-4138(문의) 04201-4139(문의) 04201-4140(문의) 04201-4141(문의) 04201-4142(문의) 04201-4143(문의) 04201-4144(문의) 04201-4145(문의) 04201-4146(문의) 04201-4147(문의) 04201-4148(문의) 04201-4149(문의) 04201-4150(문의) 04201-4151(문의) 04201-4152(문의) 04201-4153(문의) 04201-4154(문의) 04201-4155(문의) 04201-4156(문의) 04201-4157(문의) 04201-4158(문의) 04201-4159(문의) 04201-4160(문의) 04201-4161(문의) 04201-4162(문의) 04201-4163(문의) 04201-4164(문의) 04201-4165(문의) 04201-4166(문의) 04201-4167(문의) 04201-4168(문의) 04201-4169(문의) 04201-4170(문의) 04201-4171(문의) 04201-4172(문의) 04201-4173(문의) 04201-4174(문의) 04201-4175(문의) 04201-4176(문의) 04201-4177(문의) 04201-4178(문의) 04201-4179(문의) 04201-4180(문의) 04201-4181(문의) 04201-4182(문의) 04201-4183(문의) 04201-4184(문의) 04201-4185(문의) 04201-4186(문의) 04201-4187(문의) 04201-4188(문의) 04201-4189(문의) 04201-4190(문의) 04201-4191(문의) 04201-4192(문의) 04201-4193(문의) 04201-4194(문의) 04201-4195(문의) 04201-4196(문의) 04201-4197(문의) 04201-4198(문의) 04201-4199(문의) 04201-4200(문의) 04201-4201(문의) 04201-4202(문의) 04201-4203(문의) 04201-4204(문의) 04201-4205(문의) 04201-4206(문의) 04201-4207(문의) 04201-4208(문의) 04201-4209(문의) 04201-4210(문의) 04201-4211(문의) 04201-4212(문의) 04201-4213(문의) 04201-4214(문의) 04201-4215(문의) 04201-4216(문의) 04201-4217(문의) 04201-4218(문의) 04201-4219(문의) 04201-4220(문의) 04201-4221(문의) 04201-4222(문의) 04201-4223(문의) 04201-4224(문의) 04201-4225(문의) 04201-4226(문의) 04201-4227(문의) 04201-4228(문의) 04201-4229(문의) 04201-4230(문의) 04201-4231(문의) 04201-4232(문의) 04201-4233(문의) 04201-4234(문의) 04201-4235(문의) 04201-4236(문의) 04201-4237(문의) 04201-4238(문의) 04201-4239(문의) 04201-4240(문의) 04201-4241(문의) 04201-4242(문의) 04201-4243(문의) 04201-4244(문의) 04201-4245(문의) 04201-4246(문의) 04201-4247(문의) 04201-4248(문의) 04201-4249(문의) 04201-4250(문의) 04201-4251(문의) 04201-4252(문의) 04201-4253(문의) 04201-4254(문의) 04201-4255(문의) 04201-4256(문의) 04201-4257(문의) 04201-4258(문의) 04201-4259(문의) 04201-4260(문의) 04201-4261(문의) 04201-4262(문의) 04201-4263(문의) 04201-4264(문의) 04201-4265(문의) 04201-4266(문의) 04201-4267(문의) 04201-4268(문의) 04201-4269(문의) 04201-4270(문의) 04201-4271(문의) 04201-4272(문의) 04201-4273(문의) 04201-4274(문의) 04201-4275(문의) 04201-4276(문의) 04201-4277(문의) 04201-4278(문의) 04201-4279(문의) 04201-4280(문의) 04201-4281(문의) 04201-4282(문의) 04201-4283(문의) 04201-4284(문의) 04201-4285(문의) 04201-4286(문의) 04201-4287(문의) 04201-4288(문의) 04201-4289(문의) 04201-4290(문의) 04201-4291(문의) 04201-4292(문의) 04201-4293(문의) 04201-4294(문의) 04201-4295(문의) 04201-4296(문의) 04201-4297(문의) 04201-4298(문의) 04201-4299(문의) 04201-4300(문의) 04201-4301(문의) 04201-4302(문의) 04201-4303(문의) 04201-4304(문의) 04201-4305(문의) 04201-4306(문의) 04201-4307(문의) 04201-4308(문의) 04201-4309(문의) 04201-4310(문의) 04201-4311(문의) 04201-4312(문의) 04201-4313(문의) 04201-4314(문의) 04201-4315(문의) 04201-4316(문의) 04201-4317(문의) 04201-4318(문의) 04201-4319(문의) 04201-4320(문의) 04201-4321(문의) 04201-4322(문의) 04201-4323(문의) 04201-4324(문의) 04201-4325(문의) 04201-4326(문의) 04201-4327(문의) 04201-4328(문의) 04201-4329(문의) 04201-4330(문의) 04201-4331(문의) 04201-4332(문의) 04201-4333(문의) 04201-4334(문의) 04201-4335(문의) 04201-4336(문의) 04201-4337(문의) 04201-4338(문의) 04201-4339(문의) 04201-4340(문의) 04201-4341(문의) 04201-4342(문의) 04201-4343(문의) 04201-4344(문의) 04201-4345(문의) 04201-4346(문의) 04201-4347(문의) 04201-4348(문의) 04201-4349(문의) 04201-4350(문의) 04201-4351(문의) 04201-4352(문의) 04201-4353(문의) 04201-4354(문의) 04201-4355(문의) 04201-4356(문의) 04201-4357(문의) 04201-4358(문의) 04201-4359(문의) 04201-4360(문의) 04201-4361(문의) 04201-4362(문의) 04201-4363(문의) 04201-4364(문의) 04201-4365(문의) 04201-4366(문의) 04201-4367(문의) 04201-4368(문의) 04201-4369(문의) 04201-4370(문의) 04201-4371(문의) 04201-4372(문의) 04201-4373(문의) 04201-4374(문의) 04201-4375(문의) 04201-4376(문의) 04201-4377(문의) 04201-4378(문의) 04201-4379(문의) 04201-4380(문의) 04201-4381(문의) 04201-4382(문의) 04201-4383(문의) 04201-4384(문의) 04201-4385(문의) 04201-4386(문의) 04201-4387(문의) 04201-4388(문의) 04201-4389(문의) 04201-4390(문의) 04201-4391(문의) 04201-4392(문의) 04201-4393(문의) 04201-4394(문의) 04201-4395(문의) 04201-4396(문의) 04201-4397(문의) 04201-4398(문의) 04201-4399(문의) 04201-4400(문의) 04201-4401(문의) 04201-4402(문의) 04201-4403(문의) 04201-4404(문의) 04201-4405(문의) 04201-4406(문의) 04201-4407(문의) 04201-4408(문의) 04201-4409(문의) 04201-4410(문의) 04201-4411(문의) 04201-4412(문의) 04201-4413(문의) 04201-4414(문의) 04201-4415(문의) 04201-4416(문의) 04201-4417(문의) 04201-4418(문의) 04201-4419(문의) 04201-4420(문의) 04201-4421(문의) 04201-4422(문의) 04201-4423(문의) 04201-4424(문의) 04201-4425(문의) 04201-4426(문의) 04201-4427(문의) 04201-4428(문의) 04201-4429(문의) 04201-4430(문의) 04201-4431(문의) 04201-4432(문의) 04201-4433(문의) 04201-4434(문의) 04201-4435(문의) 04201-4436(문의) 04201-4437(문의) 04201-4438(문의) 04201-4439(문의) 04201-4440(문의) 04201-4441(문의) 04201-4442(문의) 04201-4443(문의) 04201-4444(문의) 04201-4445(문의) 04201-4446(문의) 04201-4447(문의) 04201-4448(문의) 04201-4449(문의) 04201-4450(문의) 04201-4451(문의) 04201-4452(문의) 04201-4453(문의) 04201-4454(문의) 04201-4455(문의) 04201-4456(문의) 04201-4457(문의) 04201-4458(문의) 04201-4459(문의) 04201-4460(문의) 04201-4461(문의) 04201-4462(문의) 04201-4463(문의) 04201-4464(문의) 04201-4465(문의) 04201-4466(문의) 04201-4467(문의) 04201-4468(문의) 04201-4469(문의) 04201-4470(문의) 04201-4471(문의) 04201-4472(문의) 04201-4473(문의) 04201-4474(문의) 04201-4475(문의) 04201-4476(문의) 04201-4477(문의) 04201-4478(문의) 04201-4479(문의) 04201-4480(문의) 04201-4481(문의) 04201-4482(문의) 04201-4483(문의) 04201-4484(문의) 04201-4485(문의) 04201-4486(문의) 04201-4487(문의) 04201-4488(문의) 04201-4489(문의) 04201-4490(문의) 04201-4491(문의) 04201-4492(문의) 04201-4493(문의) 04201-4494(문의) 04201-4495(문의) 04201-4496(문의) 04201-4497(문의) 04201-4498(문의) 04201-4499(문의) 04201-4500(문의) 04201-4501(문의) 04201-4502(문의) 04201-4503(문의) 04201-4504(문의) 04201-4505(문의) 04201-4506(문의) 04201-4507(문의) 04201-4508(문의) 04201-4509(문의) 04201-4510(문의) 04201-4511(문의) 04201-4512(문의) 04201-4513(문의) 04201-4514(문의) 04201-4515(문의) 04201-4516(문의) 04201-4517(문의) 04201-4518(문의) 04201-4519(문의) 04201-4520(문의) 04201-4521(문의) 04201-4522(문의) 04201-4523(문의) 04201-4524(문의) 04201-4525(문의) 04201-4526(문의) 04201-4527(문의) 04201-4528(문의) 04201-4529(문의) 04201-4530(문의) 04201-4531(문의) 04201-4532(문의) 04201-4533(문의) 04201-4534(문의) 04201-4535(문의) 04201-4536(문의) 04201-4537(문의) 04201-4538(문의) 04201-4539(문의) 04201-4540(문의) 04201-4541(문의) 04201-4542(문의) 04201-4543(문의) 04201-4544(문의) 04201-4545(문의) 04201-4546(문의) 04201-4547(문의) 04201-4548(문의) 04201-4549(문의) 04201-4550(문의) 04201-4551(문의) 04201-4552(문의) 04201-4553(문의) 04201-4554(문의) 04201-4555(문의) 04201-4556(문의) 04201-4557(문의) 04201-4558(문의) 04201-4559(문의) 04201-4560(문의) 04201-4561(문의) 04201-4562(문의) 04201-4563(문의) 04201-4564(문의) 04201-4565(문의) 04201-4566(문의) 04201-4567(문의) 04201-4568(문의) 04201-4569(문의) 04201-4570(문의) 04201-4571(문의) 04201-4572(문의) 04201-4573(문의) 04201-4574(문의) 04201-4575(문의) 04201-4576(문의) 04201-4577(문의) 04201-4578(문의) 04201-4579(문의) 04201-4580(문의) 04201-4581(문의) 04201-4582(문의) 04201-4583(문의) 04201-4584(문의) 04201-4585(문의) 04201-4586(문의) 04201-4587(문의) 04201-4588(문의) 04201-4589(문의) 04201-4590(문의) 04201-4591(문의) 04201-4592(문의) 04201-4593(문의) 04201-4594(문의) 04201-4595(문의) 04201-4596(문의) 04201-4597(문의) 04201-4598(문의) 04201-4599(문의) 04201-4600(문의) 04201-4601(문의) 04201-4602(문의) 04201-4603(문의) 04201-4604(문의) 04201-4605(문의) 04201-4606(문의) 04201-4607(문의) 04201-4608(문의) 04201-4609(문의) 04201-4610(문의) 04201-4611(문의) 04201-4612(문의) 04201-4613(문의) 04201-4614(문의) 04201-4615(문의) 04201-4616(문의) 04201-4617(문의) 04201-4618(문의) 04201-4619(문의) 04201-4620(문의) 04201-4621(문의) 04201-4622(문의) 04201-4623(문의) 04201-4624(문의) 04201-4625(문의) 04201-4626(문의) 04201-4627(문의) 04201-4628(문의) 04201-4629(문의) 04201-4630(문의) 04201-4631(문의) 04201-4632(문의) 04201-4633(문의) 04201-4634(문의) 04201-4635(문의) 04201-4636(문의) 04201-4637(문의) 04201-4638(문의) 04201-4639(문의) 04201-4640(문의) 04201-4641(문의) 04201-4642(문의) 04201-4643(문의) 04201-4644(문의) 04201-4645(문의) 04201-4646(문의) 04201-4647(문의) 04201-4648(문의) 04201-4649(문의) 04201-4650(문의) 04201-4651(문의) 04201-4652(문의) 04201-4653(문의) 04201-4654(문의) 04201-4655(문의) 04201-4656(문의) 04201-4657(문의) 04201-4658(문의) 04201-4659(문의) 04201-4660(문의) 04201-4661(문의) 04201-4662(문의) 04201-4663(문의) 04201-4664(문의) 04201-4665(문의) 04201-4666(문의) 04201-4667(문의) 04201-4668(문의) 04201-4669(문의) 04201-4670(문의) 04201-4671(문의) 04201-4672(문의) 04201-4673(문의) 04201-4674(문의) 04201-4675(문의) 04201-4676(문의) 04201-4677(문의) 04201-4678(문의) 04201-4679(문의) 04201-4680(문의) 04201-4681(문의) 04201-4682(문의) 04201-4683(문의) 04201-4684(문의) 04201-4685(문의) 04201-4686(문의) 04201-4687(문의) 04201-4688(문의) 04201-4689(문의) 04201-4690(문의) 04201-4691(문의) 04201-4692(문의) 04201-4693(문의) 04201-4694(문의) 04201-4695(문의) 04201-4696(문의) 04201-4697(문의) 04201-4698(문의) 04201-4699(문의) 04201-4700(문의) 04201-4701(문의) 04201-4702(문의) 04201-4703(문의) 04201-4704(문의) 04201-4705(문의) 04201-4706(문의) 04201-4707(문의) 04201-4708(문의) 04201-4709(문의) 04201-4710(문의) 04201-4711(문의) 04201-4712(문의) 04201-4713(문의) 04201-4714(문의) 04201-4715(문의) 04201-4716(문의) 04201-4717(문의) 04201-4718(문의) 04201-4719(문의) 04201-4720(문의) 04201-4721(문의) 04201-4722(문의) 04201-4723(문의) 04201-4724(문의) 04201-4725(문의) 04201-4726(문의) 04201-4727(문의) 04201-4728(문의) 04201-4729(문의) 04201-4730(문의) 04201-4731(문의) 04201-4732(문의) 04201-4733(문의) 04201-4734(문의) 04201-4735(문의) 04201-4736(문의) 04201-4737(문의) 04201-4738(문의) 04201-4739(문의) 04201-4740(문의) 04201-4741(문의) 04201-4742(문의) 04201-4743(문의) 04201-4744(문의) 04201-4745(문의) 04201-4746(문의) 04201-4747(문의) 04201-4748(문의) 04201-4749(문의) 04201-4750(문의) 04201-4751(문의) 04201-4752(문의) 04201-4753(문의) 04201-4754(문의) 04201-4755(문의) 04201-4756(문의) 04201-4757(문의) 04201-4758(문의) 04201-4759(문의) 04201-4760(문의) 04201-4761(문의) 04201-4762(문의) 04201-4763(문의) 04201-4764(문의) 04201-4765(문의) 04201-4766(문의) 04201-4767(문의) 04201-4768(문의) 04201-4769(문의) 04201-4770(문의) 04201-4771(문의) 04201-4772(문의) 04201-4773(문의) 04201-4774(문의) 04201-4775(문의) 04201-4776(문의) 04201-4777(문의) 04201-4778(문의) 04201-4779(문의) 04201-4780(문의) 04201-4781(문의) 04201-4782(문의) 04201-4783(문의) 04201-4784(문의) 04201-4785(문의) 04201-4786(문의) 04201-4787(문의) 04201-4788(문의) 04201-4789(문의) 04201-4790(문의) 04201-4791(문의) 04201-4792(문의) 04201-4793(문의) 04201-4794(문의) 04201-4795(문의) 04201-4796(문의) 04201-4797(문의) 04201-4798(문의) 04201-4799(문의) 04201-4800(문의) 04201-4801(문의) 04201-4802(문의) 04201-4803(문의) 04201-4804(문의) 04201-4805(문의) 04201-4806(문의) 04201-4807(문의) 04201-4808(문의) 04201-4809(문의) 04201-4810(문의) 04201-4811(문의) 04201-4812(문의) 04201-4813(문의) 04201-4814(문의) 04201-4815(문의) 04201-4816(문의) 04201-4817(문의) 04201-4818(문의) 04201-4819(문의) 04201-4820(문의) 04201-4821(문의) 04201-4822(문의) 04201-4823(문의) 04201-4824(문의) 04201-4825(문의) 04201-4826(문의) 04201-4827(문의) 04201-4828(문의) 04201-4829(문의) 04201-4830(문의) 04201-4831(문의) 04201-4832(문의) 04201-4833(문의) 04201-4834(문의) 04201-4835(문의) 04201-4836(문의) 04201-4837(문의) 04201-4838(문의) 04201-4839(문의) 04201-4840(문의) 04201-4841(문의) 04201-4842(문의) 04201-4843(문의) 04201-484

에서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또한 국가는 어디까지 통제할 것인가? 이것을 ‘페스트’에서의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에 반론하려면 성실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연결 지어 보면 어떨까 싶다.

셋째, 기후변화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꾼다’, ‘쓰레기책’에서는 위기의식을 느끼지만 행동하지 않는 우리의 문제를 보여준다. 그리고 기후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닌 경제문제라는 진실은 아주 불편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지탱한 에너지가 얼마나 파괴적인지를 깨달아야 행동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정부 정책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갖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상황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번 강좌는 시대 상황의 어려움을 안고 진행되다 보니 소통의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담당자의 제안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재난의 시기에 이런 강좌

가 있음에 큰 위로를, 강사들의 역량에 편차가 있었다는 불만이, 남은 강의도 열정을 잃지 말자는 다짐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강의 종료 후 독서동아리의 참여를 독려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수강생들의 교감이 적은 만큼 잘 진행이 될지 우려가 된다.

9강까지 진행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로 인해 강의가 잠시 중단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온라인으로 진행 중이다.

나치 시절 유대인 수용소에서 생존한 빅터 프랭클(Viktor Frankl)은 ‘삶의 의미를 아는 것’이 최악의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동의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강좌는 카우치(couch)였다. 자신을 발견하는 과정이었으며, 자신이 가진 생각을 증폭시킬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것만으로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백신을 맞은 것이다.



청렴 1등 도서관은 어디? 『청렴도서 챌린지』 스타트!

청주오창도서관 슬기로운 청렴생활

2020년 현재 청주시에는 13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중에 과연 청렴 1등 도서관은 어디일까요? 참여와 소통으로 청렴문화를 꽃피우고 있는 도서관을 지금 바로 소개합니다!

청주오창도서관에서 열심히 근무하는 한 사서는 도서관에서 어떻게 하면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하였습니다. 그 결과 도서관에서 가장 흔한 ‘책’을 매개로 시작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해는 『청렴도서 챌린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청주오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청렴도서 챌린지』는 청렴문화운동 “도서관 1館 1淸” 정책의 일환으로 매월 도서관에서 선정한 청렴 추천도서를 전 직원이 함께 읽고, 릴레이로 독후감을 작성하여 이를 주제로 청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캠페인입니다.

이렇게 전 직원이 오순도순 둘러 앉아 청렴도서에 관한 감상평을 공유하는 시간을 통해 청렴마인드 향상은 물론 직원들 간에 평소하지 잘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속 시원히 나누며 유쾌하고 즐거운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아무 노래 챌린지’, ‘1일 1강 챌린지’, ‘코로나 덕분에 챌린지’가 유행이었다면, 2021년에는 우리 모두 다함께 청렴의 의미를 되새기는 『청렴도서 챌린지』를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2020년 청주오창도서관 pick! 청렴도서

아동을 위한 청렴도서

서명 가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저자 김경옥 **출판사** 내일을여는책

가짜 뉴스란 무엇일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퍼지고,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까? <가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는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짜 뉴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짜 뉴스에 관한 재미있고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가짜 뉴스에 속지 않는 눈을 가지며, 매시각 쏟아지는 뉴스의 홍수 속에서 늘 이성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뉴스를 듣고 판단하는 자세를 기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인을 위한 청렴도서

서명 선한 권력의 탄생

저자 대커 켈트너 **출판사** 프런티어

1%가 아닌 ‘우리 모두’를 위한 권력 사용법
권력이란 무엇일까? 권력의 사전적 정의는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권리와 힘’이다. 하지만 권력은 악하고, 폭력적이고, 무조건적으로 강한 힘이 아니다.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마음을 알아줄 때 강력하고 대단한 힘이 생겨난다. 이것이 바로 “선한 권력의 탄생”이다. 《선한 권력의 탄생》은 이 시대에 필요한 ‘선한 권력’에 대해 새로운 정의를 내리며, 권력에 대한 혁신적인 시각을 제시하고 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고 있다.



머물수록 즐거운 곳, 금빛도서관

금빛도서관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 별! 공! 간!

사금이 반짝이는 개울, 금천(金川)이 낳은 이름인 금빛. 긴 세월을 가로질러 금보다 환한 지식의 빛으로 시민의 삶을 밝히고 있는 청주금빛도서관에 책과 벗하며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편안한 독서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과, 청소년 독서 공간, VOD서비스, 전자책 열람코너 등 다른 도서관과 차별화된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중 청주시 타 도서관에서는 볼 수 없는 청소년을 위해 다채로운 공간인 ‘청소년 존’과 가상현실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VR존’을 소개합니다.



청소년 존

중·고등학생들을 주 대상으로 청소년 권장도서, 웹툰, 청소년 잡지 등을 비치하여, 책과 함께 마음의 휴식을 취하고 편안하게 머무를 수 있는 독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용시간 평일 09:00~22:00 / 주말 09:00~18:00
이용방법 자유열람 및 자료대출가능
이용대상 중학생 이상
이용장소 2층 종합자료실1 내 청소년 존
장서구성 총 3,430여권(만화 950권, 청소년 도서 2,480권 정도)

VR존

입체적으로 구성된 가상현실 화면 속에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문제를 풀어나가는 체험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금빛도서관은 조용히 책만 읽고 가는 곳이 아니라, 활동적이고 역동적인 체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용시간 월~목, 토~일 / 10:00 ~ 12:00, 15:00 ~ 17:00
이용대상 전 연령 가능(초등학생 미만은 보호자 동반)
이용방법 좌석예약 코너에서 VR존 예약 후 종합자료실2 데스크에서 장비 수령 후 체험
이용장소 금빛도서관 3층 종합자료실2 VR존
콘텐츠 개수 총111개 (Free, VIVE Pro)
 모험, 캐주얼, 작업, 시뮬레이션 등 총 20개 장르로 구성
 (대표 콘텐츠 : 스파이더맨(Far From Home), 드래곤 플라이트, Down The Rabbit Hole 등)



예술로 기억되고 기록될 2020년

예술분야별 스페셜리스트가 들려주는 위대한 유산과 가치탐구

글 시민기자 고현주

2020년은 우리들 모두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기록될 것인가?

모든 것이 단절되었을 것만 같은 요즘.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는 소소한 강연이 열려 건조한 일상과 마음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샘물이 되어주고 있다. 2020년 서원도서관 「예술로 만나는 인문학」도 그 중 하나이다. 서원도서관에서는 매해 다양한 주제로 시민들을 위한 인문학 강연을 선사해 왔는데, 올해는 ‘예술 분야별 스페셜리스트가 들려주는 위대한 유산과 가치탐구’라는 주제로 크게 세 분야로 나뉘어 시민들과 함께하고 있다.

1차 강연은 ‘시대를 바꾼 작곡가와 명작’이라는 제목으로 예술 감독과 작곡가로 활동하고 있는 줄리정 교수가

바흐, 베토벤, 하이든, 모차르트 등을 소개하며 고전음악과 오페라의 세계로 시민들을 초대했다. 다소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클래식의 영역을 작곡가들의 삶과 인간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추어 흥미롭게 안내했다.

2차 강연은 ‘패션왕국과 향기의 미술관’이라는 제목으로 주식회사 By Her 팽정은 대표와 조향사로도 활동하고 있는 향기의 미술관 노인호 대표가 맡았다. 팽정은 패피의 강연에서는 패션공화국을 창조한 최초의 패셔니스타 루이 14세를 소개하고, 명품 브랜드로 패션 스타일의 흐름을 짚어주어 강연 참석자들의 패션 감각을 한껏 높여주었다.

노인호 대표 강연은 향기로 바라본 미술 오리지널 판과



조선미술편이 있다.

첫 강연에서는 명화의 감성을 향기로 전한다는 강연 취지에 걸맞게 고흐의 해바라기, 모네의 수련, 잔느 사마리의 초상 등 그림에 어울리는 향기를 맡아보는 매우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휴관으로 잠시 미뤄졌던 2강은 10월 22일에 재개하여 조선미술에 대해 감상할 예정이다. 직접 강연에 참여하여 후각으로 감상하는 명화체험을 권하고 싶다. 3차 강연은 ‘도자기에 투영된 인류의 욕망’이라는 제목으로 리누갤러리 조쉬 관장이 10월말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의 재력을 보여주는 소품으로 종종 등장하는 것이 있다. 바로 유럽 브랜드의 예쁜 찻잔과 그릇들이다. 특히 부잣집 사모님들이 손님을 접대할 때 빠지지 않고 사용된다. 도자기를 통해 인간이 보여주고자 한 욕망은 무엇이였을까? 질문을 던지며 시작할 이번 강의는 시대를 초월한 아름다움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으로 채워질 예정이라고 한다. 벌써부터 기대가 차오른다.

1차시 음악, 2차시 패션과 향기, 3차시에는 도자기를 소재로 기획된 이번 서원도서관 인문학 강의는 예술 분야 별 스페셜리스트가 들려주는 인류의 위대한 유산과 가치 탐구의 시간으로 알차게 꾸려져 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에 무엇 하나 쉽지 않은 2020년이다. 매일 늘어나는 확진자수는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언제 종식이 될지 기약도 없는 시간들은 우리를 피로하게 한다. 하지만, 주변을 긍정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 주위에는 선물 같은 위안들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원도서관 인문학 강의와 함께 잠시 잊고 있던 예술의 본능을 끄집어내보는 것은 어떨까. 암울함과 불행으로 남겨지지 않고 예술로 만나는 인문학이 우리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고 기억되고 기록될 2020년이길 응원해본다.



포스트코로나19시대의 진단과 치유

길위의 인문학 : 역사와 미래학으로 진단하고, 여행과 숲으로 치유하다

※ 길 위의 인문학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인문강좌 및 체험활동 프로그램으로, 청주흥덕도서관에서는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 연속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운영됨.

코로나의 여파가 조금은 잠잠해진 7월, 여름 날 따가운 햇살이 비취질 때 흥덕도서관 <길위의 인문학>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보통 날씨 좋은 5월, 9월, 10월쯤에 진행되는 강의인데 이렇게 무더위가 시작될 때 진행되어 수강생 모집이 잘 될까 걱정이 되었지만 우려가 무색하게 35명 수강인원이 꽉 찼습니다. 아마 2월부터 지금까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일시 중단되어 이런 인문학강의에 목말라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코로나도 어찌하지 못할 시민들의 열정인 것 같습니다. 강의내용은 역시 가장 큰 화두인 코로나를 중심으로 구

성하였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길만큼 활동에 제약을 받아 우울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우울한 마음과 지친일상을 위로하고자 역사적으로 우리가 어떤 질병들을 이겨냈었고, 앞으로도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며 숲과 자연으로 탐방을 떠나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습니다.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두근두근한 마음으로 첫 대면강의가 시작되었고 35명 중 27명이 참석하여 나쁘지 않은 출발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순조롭게 10회가 진행되어 마무리가 되면 좋았을 텐데 중간 중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시련은 탐방 가는 날의 날씨였습니다. 길 위의 인문학에서의 꽃이라 하면 탐방이고, 좋은 탐방이라 하면 그 날의 날씨가 8월은 차지하는데, 모처럼의 바깥나



들이인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걸어 다닐 수 없다거나, 우중충해서 비라도 온다면 강의해주시는 강사님, 인솔하는 담당자, 그리고 수강생 모두 기운이 빠지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탐방 때는 햇빛이 내리쬐는 남한산성으로 가서 적당한 나무그늘을 즐기고 맑은 날씨를 느낄 수 있었지만, 두 번째 탐방이 8월 초 우리나라에 기록적인 장마가 이어지던 시기여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우리 일행이 수원화성에 도착하자 날이 개기 시작해서 덥지도 춥지도 않은 날씨에 수원화성을 탐방할 수 있었고, 같이 간 응건릉 또한 관람이 가능해져 정해진 일정대로 모두 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고비를 넘겼나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8월 중순 갑작스런 코로나 확진자 급증으로 인해 다중이용시설인 도서관은 다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남은 일정은 탐방 1회, 후속모임 1회, 2회차 일정은 무기한 연기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름 순탄하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발이 묶여버려 많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렇지만 열의 있는 수강생들의 참여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길 위의 인문학 마지막 강의를 마무리하였습니다.

3개월에 걸쳐 10회 동안 진행된 이번 길 위의 인문학 강연 및 탐방 중에 인상 깊은 소감을 남겨준 수강생들의 후기가 있어 소개해봅니다.

『오늘 강연을 듣기 위해 집을 나선 것도 낯선 곳으로 향하는 여행 같았습니다. 집에서 주로 있는 시간들을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생각하며 지냈거든요. 여행은 시간과 공간의 일교차라는 구절이 기억에 남습니다.』

『여행은 관광지를 점점으로 돌아다녔는데 그 점을 연결하여 이어지는 것이 진정한 여행이라는 말이 참 좋았습니다. 앞으로의 여행은 선 여행으로 생각의 전환을 이끌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고민, 걱정, 근심, 스트레스를 잊게 해준 힐링 타임이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위대함 앞에 오는 하루의 행복이 오래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책 처방 우체통’

‘처방’이란 단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환자가 의사 진료 후 약을 처방받기도 하고, 운동처방사를 통해 적절한 운동의 종류와 방법을 처방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처방이라는 단어는 과거에는 의학적으로 사용되었다면, 지금은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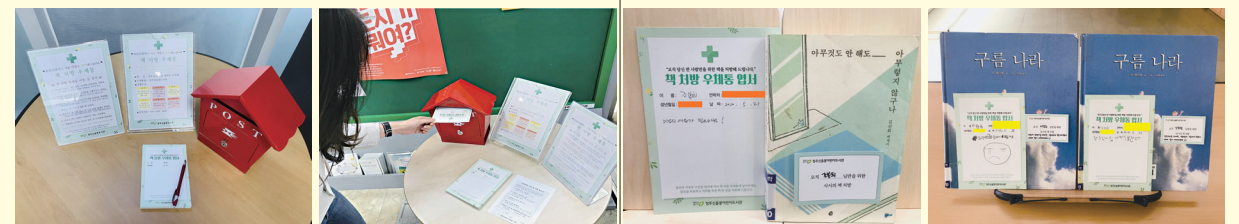
영국에서는 의사에게 약 대신 자연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환자는 자연을 통해 증상이 완화되고 행복 수치를 높이는 자연 처방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도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오직 한 사람을 위한 ‘책 처방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책 처방 우체통을 이용하는 방법은 신울봉어린이도서관 자료실 입구에 비치된 엽서에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를 적고, 고민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적어 엽서를 책 처방 우체통에 넣습니다. 고민이 접수되면 4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준비단계는 이용자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진단합니다. 두 번째는 책 선정 단계로 이용자의 고민에 적합한 양질의 책을 선정합니다. 책과 함께 도움이 될 만한 영화, 음악, 사이트 등 다양한 자료를 추가로 선정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책을 소개하는 단계입니다. 작은 카드에 사서가 이 책을 선정하게 된 이유를 간단한 서평으로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는 이용자

에게 피드백을 받아 책 처방이 도움이 되었는지를 평가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기에 책을 처방받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이용자의 고민이 우체통으로 들어왔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고민 중에도 육아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엄마들의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중에는 세 명의 아이와 몸싸움, 마음 싸움으로 지쳐있다는 고민이 있었는데, 문선 작가의 『엄마인 당신, 안녕한가요?』라는 책을 처방하였습니다. 서툰고 부족한 엄마에게 위로를 전하고, 책을 통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육아 에세이입니다. 이 책과 함께 ‘고생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힘들고 지치는 건 당연해요. 토닥토닥’라는 간단한 서평을 남겨 이용자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책 처방 우체통은 이용자의 고민을 공감하고, 작은 위로도 되고 싶은 간절함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가요? 책 처방 우체통을 찾아주세요.



문화가 있는 날 동화구연 「책이랑 동화랑」

청주강내도서관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오전 10시에 어린이집, 유치원, 지역아동센터 등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모자열람실에서 동화구연 ‘책이랑 동화랑’을 운영합니다. 동화구연은 책을 소재로 어린이들의 발달 과정에 맞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창의력, 상상력, 표현력 및 발표력을 기를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직접 책을 읽는 것보다 읽어주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머리로 그림을 그리며 책의 세계로 더 쉽게 빠져들기도 하고, 음성 변화, 표정, 몸짓, 움직임 등 머릿속에 상상하여 그릴 수 있어 좋아합니다. 김은경 강사는 책을 다 읽고 나서 아이들이 함박웃음 짓던 모습을 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 「모자 사세요」 동화구연 때는 책을 읽고 난 후 선생님과 참여자들이랑 모자를 만들고 역할극을 했고 거울에 비친 모습처럼 따라 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모자 만들기를 했을 때는 개성을 살려 특이한 모자를 만들었습니다. 둘씩 짝을 지어서 한 사람은 모자 장수(아저씨)를 또 한 사람은 원숭이 역할을 했습니다.



모자 장수보다는 원숭이 역할이 더 재미있었습니다.”(강내초등학교 정하빈 어린이) 그리고 다시 「분홍애벌레 위글리」 동화를 들으며 나비의 탄생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동화를 들으며 주인공들이 나오는 것에 유아들이 많은 흥미를 보이며 집중도 잘 하였습니다. 동화를 듣고 한지를 마음껏 구기기도 하고 찢은 한지를 긴 비닐봉지 속에 넣어서 고무줄을 중간에 묶어 애벌레를 만들었습니다. 직접 만들기를 통해 알이 애벌레를 거쳐 나비가 되는 과정을 잘 알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훈민정음어린이집 노랑초록반 담임선생님)

이 프로그램은 관내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으로부터 매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어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지속적으로 강내도서관 모자열람실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화구연 전문가를 초빙하여 유아기 때부터 책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습관화되도록 지도하여 안정적인 독서기반을 쌓는 좋은 프로그램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코로나 후유증’ 옥산도서관에서 날려버리자

옥산도서관 ‘원예’ 주제 특화프로그램과 패키지 대출 실시

옥산은 도시의 화려함과 아기자기한 농촌의 정겨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예전부터 벼농사를 비롯하여 방울토마토, 애호박 등 시설원예가 발달하였고 근래에는 대단지 아파트 주변 주말농장과 텃밭이 인기입니다.

옥산도서관은 이러한 지역특색을 반영하여 원예도서 패키지 대출 서비스와 원예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예 패키지 대출 서비스는 원예를 주제로 한 도서를 여러 권 묶어 대출하는 서비스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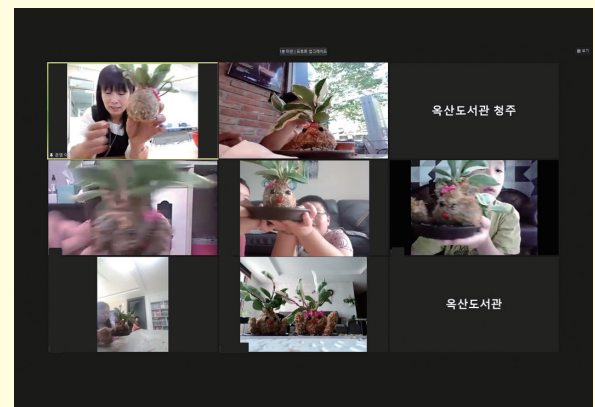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집콕생활’과 ‘홈가드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9월 독서의 달 행사로 유아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가족과 함께 토피어리 만들기》 체험을 하였습니다. 비대면 온라인 강좌로 진행하였는데 코로나로 나들이를 가지 못하는 가족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선생님의 수업을 들으며 꼼지락꼼지락 자신만의 식물을 만들고 이름도 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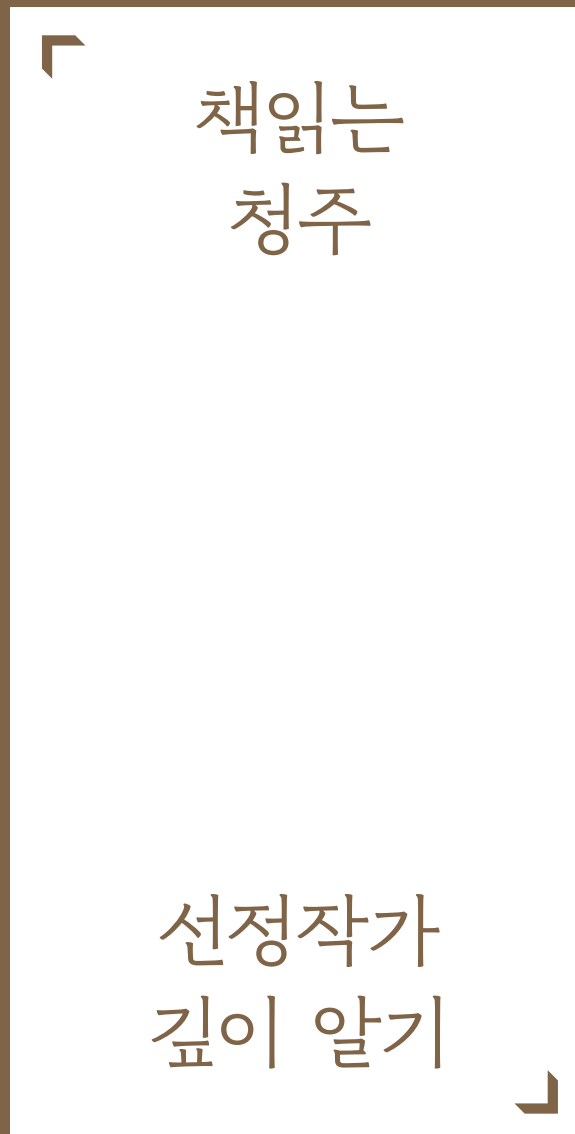


코로나19로 실내에서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사용이 어려워져 공기정화식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반려식물’로 지친마음을 위로받고자 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식물기르기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옥산도서관에 한번 방문하시어 원예책도 빌리고 원예 프로그램도 하면서 원예와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갖으면 어떨까요?



작가가 빛나는 순간



2006년 가을 처음 시작된 책읽는청주가 어느덧 23번째를 맞아 새로운 대표도서를 선정하고 1년여간 시민들과 함께 읽고 공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과 함께하던 많은 시간들이 이뤄지지 못해 아쉬움이 많았는데, 인터뷰를 통해 작가님과 깊이 있게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Q — ‘국민 역사 선생님’, ‘큰★별쌤’ 등 다양한 애칭으로 불리우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강사 이자 작가이신데요, “역사의 쓸모”로 청주시민들과 만나게 된 소감과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책읽는 청주 대표도서로 역사의 쓸모를 선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의 쓸모에서는 사람을 만나는 인문학으로서의 역사를 담고 싶었습니다. 과거 사람들을 멘토로 삼아 중심을 잡고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하며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을 통해 작게나마 누군가의 삶에 건강한 자극을 줄 수 있으면 합니다.

Q — ‘길을 잃고 방향 할 때 마다 나는 역사에서 답을 찾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사에 관심을 갖게된 계기는 무엇인지, 역사를 통해 어떻게 성장하고 답을 찾으셨는지 궁금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 한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며 이전에 살던 다양한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하는 고민들을 그 때도 했고, 우리가 겪는 문제들을 그 때도 똑같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역사 속 누군가의 삶을 현재의 내 삶에 적용하여 둘러보면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Q — 「역사의 쓸모」에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 이야기들로 ‘책읽는청주’ 함께 읽기에 참여하셨던 많은 시민분들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순간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작가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박상진 선생님은 1910년에 판사시험에 합격하지만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나라를 빼앗기게 되자 판사직을 내던져요. 만약 이분의 꿈이 단지 ‘판사’라는 명사였다면 그냥 판사로 일하면서 독립운동가들에게 판결을 내리며 안위를 보장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이 분은 판사라는 직업에 방점을 찍고 살아간 분이 아니었어요. 박상진 선생님이 판사가 된 이유는, 법을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였거든요. 결국 판사 자

리를 내려놓고 독립운동에 투신하다 체포되어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순국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명사로 된 직업을 통해 누군가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지를 고민하는 동사의 꿈을 꾸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는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Q — 작가님께서 “한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늘 질문과 고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우리의 삶에 역사가 어떤 방향성을 줄 수 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으면 좋은지 청주시민들에게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우당 이회영 선생의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접한 순간을 기점으로 제 삶이 나뉘는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접하기 전까지는 한 번도 내 삶이 딱 한 번 뿐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거든요. 그때부터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역사 속 인물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 메시지는 분명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되어줄 겁니다.

일반부문

역사의 쓸모



최태성 작가님

Q ____ 디지털 시대, 기술의 새로움과 편리함 너무 더 행복하고 지혜로운 사용을 위해 성찰하시는 기자님으로 유명하신데요, “뉴스, 믿어도 될까”로 청주시민들과 만나게 된 소감과 책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졸저가 청주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우리는 어느 때보다 미디어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받고 있지만, 미디어를 똑똑하게 이용하는 법은 학교와 사회에서 거의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치는 배경이기도 하구요. 청소년용 책이지만, 사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날마다 미디어를 통해서 세상을 읽는 어른들을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Q ____ 철학을 전공하셨는데 어떻게 IT전문 저널리스트가 되셨는지, 그 계기와 과정이 궁금합니다.

철학을 배운 계기로, 늘 철학도의 문제의식으로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철학은 기술과 거리가 있지만, 무엇이든 성찰하게 하고 감춰진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만듭니다. 기술에 깊이 의존한 삶은 어떠한 편리함을 제공하면서 무엇을 빼앗아가는지를 생각해 볼 때입니다. 신문기자이다보니 다양한 취재영역을 거치게 마련인데, 저는 강력한 기술이 주는 빛과 그늘을 함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가짜뉴스 현상도 마찬가지지요. 편리한 기술에 더 깊이 의존하게 된 현실의 그늘이라고 봅니다.

Q ____ 평소에 도서관을 잘 이용하시나요? 가짜 정보가 넘치는 탈진실(Post-truth)시대에

도서관의 역할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도서관을 즐겨 찾습니다. 사실은 1980년대 중반 대학생 시절 도서관 알바를 했습니다. 한 달에 40시간 도서관 서고 정리를 하는 대가로 5만원을 받는 알바였습니다. 책수레에 쌓인 반납도서를 분류기호대로 정확히 서가에 꽂아놓는 일이었지요. 책수레를 밀고 다니며 학생 출입금지 구역인 서고 곳곳을 누비면서 ‘문자향 서권기’에 빠졌습니다.

모든 정보가 손 안에 있는 상황에서 도서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무한 정보 환경에서 현명한 정보 이용법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공간, 즉 새롭게 달라지고 있는 리터러시의 교육과 체험공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____ “뉴스, 믿어도 될까?”는 청소년들에게 뉴스와 미디어를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을 기자로서의 반성과 성찰을 담아내 꼭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담아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책에는 다 담지 못했지만 더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언론인의 꿈을 키우는 청소년들에게 격려도 좋습니다. ^^)

자유롭기 위해서 더 많은 돈과 권력을 가져야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가 무엇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 힘의 존재를 깨닫는 게 우선입니다. 우리는 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디어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된 미디어를 바로 보고 잘 이해하는 만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부문 뉴스, 믿어도 될까?



구본권 작가님

는

기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토종물고기 이름이라든가 특징, 물고기의 산란기라든가, 한번 산란하면 몇 개의 알을 낳는지 등등. 직접 공부하면서 어느 정도 생태적 사실에 근거해 주인공을 만들었죠. 예를 들면 토종물고기중 메기는 정말 강한 물고기라는 근거를 통해 주로 왕메기라든가, 스타메기라든가 하는 이름처럼 강한 힘을 상징하게 했고, 미호종개는 생김새가 워낙 가늘고 날렵해 주인공 이름도 버들잎을 생각해 잎파랑이라 지었습니다. 생태공부하면서 주인공 이름을 짓고 정리하는 작업이 재미있었습니다. 예쁜 이름은 주로 순 우리말에서 찾아 지으려고 의도했습니다.

아동부문

안녕, 나야 미호종개



김정애 작가님

Q ____ 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인이자 작가로서, 책읽는청주 대표도서로 청주시민들과 만나게된 소감과 “안녕, 나야 미호종개”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19로 지역사회가 몸살을 앓고 있는 와중에 매년 진행하던 행사를 멈추지 않고 진행해준 청주시와 시민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환경오염과 지구온난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청주시의 중심물길인 미호천의 환경오염을 우려해 쓴 동화가 많은 시민들에게 읽히게 되어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Q ____ 이번 도서는 지역의 환경과 생태를 담고 있어 더욱 친숙하게 다가오는데요, 지역의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안녕, 나야 미호종개” 창작은 미호천에 빛을 많이 지고 산 사람이 조금이나마 빛을 갚겠다는 마음으로 시작된 일입니다. 늘 아름답기만 하던 물길이 언젠가부터 오염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어요. 강물오염과 지구온난화, 미세먼지 발생 등은 환경생태오염이라는 같은 화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강물을 재자연화 하고, 지구온난화를 막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일 수 있을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죠. 우리 지역의 중심물길이자 우리의 미래가 달린 미호천이 재자연화 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화가 그런 역할에 일조하기 바랍니다.

Q ____ 작품속 등장인물의 이름이 인상적입니다. 작품을 쓰실 때 캐릭터를 잡고 이름을 선정하시

Q ____ 새로운 작품을 준비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간단한 소개와 인사 부탁드립니다.

소설가라는 이름을 달고 산지 어느새 20년이 넘었습니다. 기자 생활을 병행하느라 정작 소설 작업에 집중하지 못했죠. 오랫동안 묵혀 놓았던 장편소설을 올해 발표할 예정이고 미호천을 배경으로 한 동화 역시 창작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죠? 가끔 미호천으로 나가 물길을 보시면 어느 정도 힐링 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야생의 성질을 간직한 멋진 물길이 있다는 것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청주 아이러북 LOVE BOOK 선정도서 작가 칼럼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그림책 안으로

글·그림 정호선 그림책작가

지금 우리는...

도서관 곳곳에 생기를 주던 친구들의 귀여운 웃음과 몸짓들, 고사리 손잡고 주말 도서관 나들이 나온 여유로운 아빠의 미소, 작가의 만남을 보러 나온 궁금한 발걸음들, 책을 대출 하러 온 수줍은 아이의 조그맣게 반짝이는 눈 그리고 차향 가득한 카페에서의 기분 좋은 수다들, 온 가족과 함께 하는 일요일 북적이는 마트 나들이, 콧노래를 부르며 여행 가방을 챙기는 즐거운 손, 보고 싶은 얼굴들과 고단했던 하루를 식히는 저녁 모임. 모두 만남이라는 공통된 우리의 일상의 모습들이었다.

코로나가 우리를 가장 답답하고 슬프게 하는 것은 이런 일상의 작고 소소한 만남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 버린 것이다. 그 평범했던 만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생기를 주고 웃게 하고 힘차게 나아가게 했는지 그 마주한 얼굴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이제야 알게 된다.

그렇다면 지금, 그림책을 펼쳐보자! 우리는 알지 않는가? 그림책 안에 그리운 얼굴들이 아름다운 일상들이 활기찬 발걸음이 멋진 만남과 아름다운 이별이 환상적인 여행이 있다는 것을. 코로나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길고 긴 기다림을 그림책을 펼쳐 끝내보자.

언젠가 가고 싶었던 그 곳으로 우리 함께 떠나는 것 어때요?

바다 마을 기차역에서 5시에 만나요!

모든 날의 여행을 응원하는 다정한 인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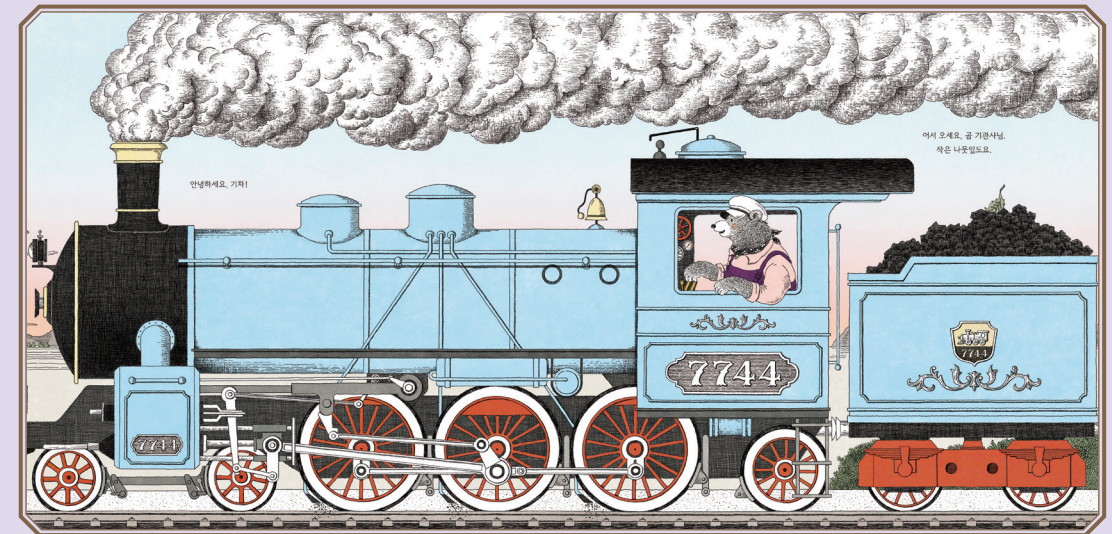
기차가 출발합니다

바닷 마을 역에 노을이 지기 시작하는 오후 5시 즈음 “땡땡!” 만남의 기쁨과 설렘을 안고 기차가 도착합니다. 둘만의 첫 여행길에 오른 고양이 아빠와 아들은 기차역 매점에서 봉어빵을 사며 다가올 여행지에 한껏 기대에 차 있고 느린 천성을 극복하고 매표소 직원이 된 나무늘보는 오늘도 승객들의 배려로 하루하루 손이 빨라지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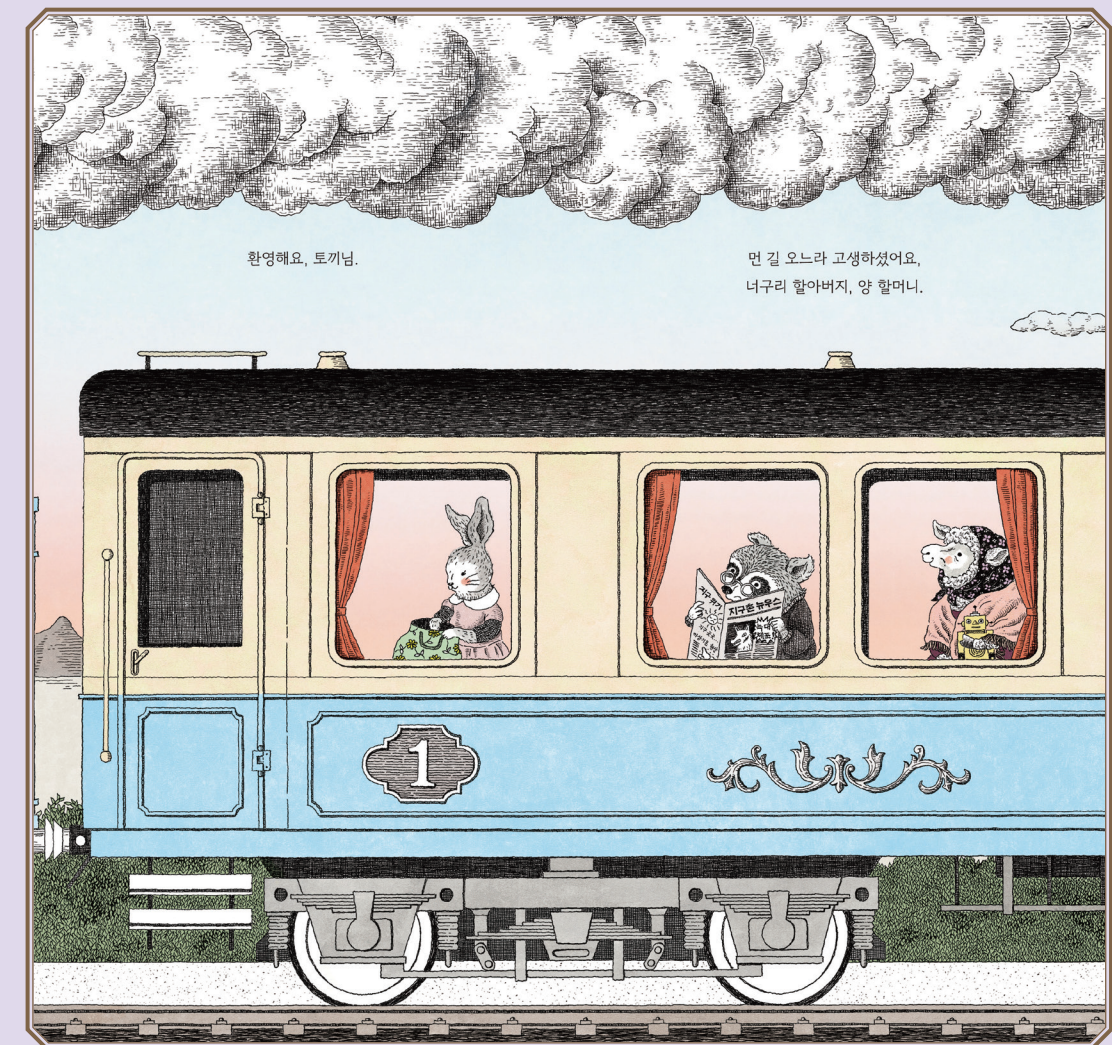
있어요.

사랑에 빠진 고릴라씨는 수줍어 분홍빛이 된 볼만큼 발간 꽃다발을 들고 설레는 마음으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책을 꼭 껴안고 생각에 잠겨 벤치에 앉아있는 고슴도치는 무슨 생각에 푹 빠져 있는 걸까요? 그때 드디어 기차가 역에 도착하고 기차 한칸 한칸에 타고 있는 주인공들에게 현대의 ‘인사말’로 반갑게 맞이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차!



먼길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너구리 할아버지, 양 할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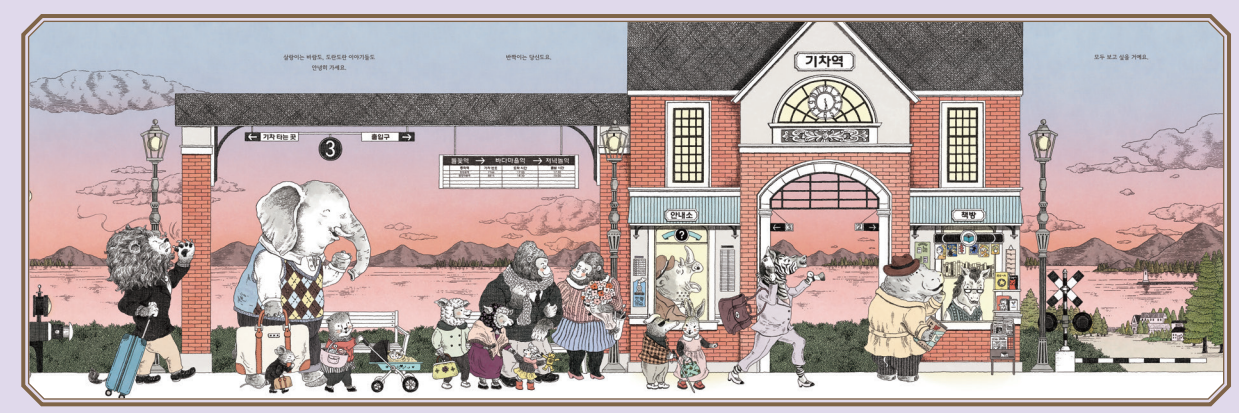
기차 역 안에서 기다리던 여행자들은 도착한 여행자들과 재회하며 반가움과 기쁨을 표현하고 시간은 벌써 아쉽게 흘러 기차는 떠날 준비를 합니다. 어느덧 기차역에는 발 간 노을이 가득 채워집니다. 떠날 준비를 마친 기차에 아쉬운 “땡땡땡!” 출발의 종소리가 울립니다. 빈 기차칸에 올라탄 보드라운 구름은 평안하게 미소를 보내고, 쏟아

지는 잠 때문에 늘 내릴 역을 놓쳐 깜짝 놀라는 코알라는 다음 역이 더 아름답기를 기대합니다. 일 때문에 떨어져 지내야 하는 알파카 부부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물을 흘리네요. 이렇게 기차 한칸 한칸에 탄 각각의 주인공들은 모두 그리운 마음을 안고 각자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를 향해 다시 여행길에 오릅니다.

걱정 말아요.
다시 만날 날은 더 기쁠 테니까요.



살랑이는 바람도, 도란도란 이야기들도



안녕히 가세요.
반짝이는 당신도요.
모두 보고 싶을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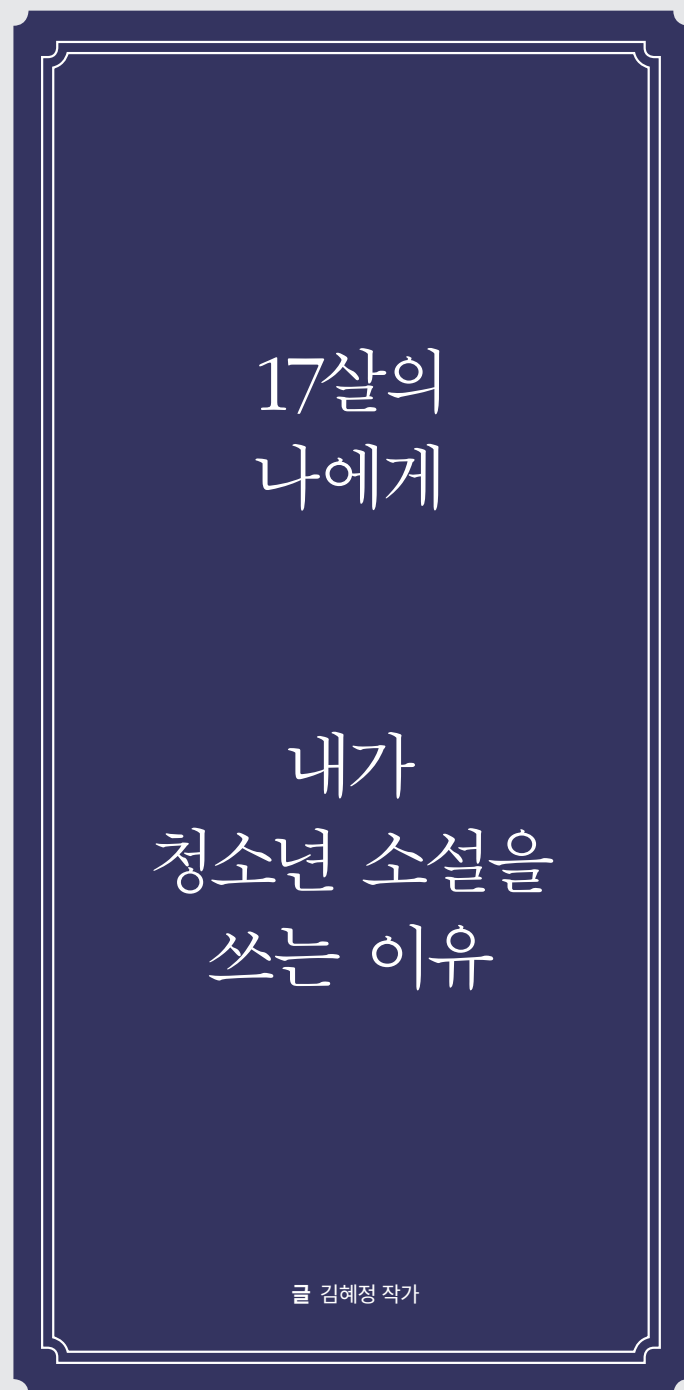
이렇게 스쳐 지나기 쉬운 구석구석의 모두의 안부를 물으며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 생각하며 낯선 곳에 도착한 이들과 익숙한 곳을 떠나는 이들은 순수한 사랑의 인사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세상을 향해 한 걸음 땔 용기를 얻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전하는 가장 쉽고 따스한 표현인 ‘인사말’로 세상 여행을 앞둔 아이들과 낯선 곳으로 떠날 용기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인사를 남기며 기차가 출발합니다.

그림책이 나오기 까지 기다리며.
나, 나의 가족들, 친구들, 내가 아직 만나보지 못한 그들, 갓가지 구름, 나무로부터 홀로 떨어진 나뭇잎, 수줍은 노을 등이 주인공으로 등장 하는데 나는 그들을 과거의 증기기차에 태우기로 했다.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과거의 증기기차와 만나 과거와 현재가 어우러지는 공존의 만남과 헤어짐을 이루게 하고 싶었다.
그림책 형식은 앞면은 만남 뒷면은 헤어짐을 이야기하

는 구성이면 좋겠다고 생각했고 아코디언 그림책이 이 구성에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아코디언 책의 긴 물성을 이용해 긴 기차의 이미지를 떠올렸고 결론적으로 이야기 구성과 이미지가 딱 맞는 그림책이 되겠다는 확신으로 만남과 헤어짐을 기차여행에 담는 그림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긴 기차의 길이 만큼 작업은 길고 인내하는 시간이었다. 책이 완성되어가는 긴 작업 과정은 바로 독자들을 만날 날을 향한 기다림의 과정이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로 겪고 있는 지금의 현실처럼 보였던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게 그 충분히 긴 시간들은 세상 곳곳에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네고 안부를 묻는 참 행복한 꿈을 꾸는 시간이었다.

우리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며 나 또한 그림책 안에서 그렇게 반가운 만남의 꿈을 꾸었던 것이다.



... 청소년 소설을 주로 쓰다 보니, 중고등학교에 강연을 가는 일이 많다. 강연이 끝나고 질의 응답 시간이 이어지는데,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두 가지다.

... “십대도 아니면서 왜 십대가 주인공인 글을 쓰세요?”와 “왜 주인공 대부분이 여자아이들이예요?”다. 두 질문의 대답은 같다. 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다. 내가 여자라서 여자가 주인공인 글이 많다는 건 쉽게 설명이 가능한데, 첫 번째 답변에는 다들 의아한 표정이다. 나는 십대가 아니니까. 하지만 나는 내 십대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 소설을 쓰기 시작했고, 여전히 나의 십대 시절 이야기를 하고 있다.

... 나는 2007년 『하이킹 걸즈』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그 당시 청소년 문학이라는 용어도 생소했고, 국내 작품도 많지 않았다. 2007년 전후로 여러 출판사에서 청소년 문학상을 제정했는데, 작가가 되길 꿈꾸었던 나는 마침 십대가 주인공인 소재가 있기에 공모전에 작품을 냈다. 당시 나는 인생의 길을 잃고 헤매는 중이었고, 작품 속 주인공들이 꼭 그랬다. 상을 받고 나서도 청소년 문학이 뭘 줄 잘 몰랐기에 계속 청소년 소설을 쓸 줄 몰랐다. 하지만 수상작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조금 있었고, 외국 청소년 문학을 읽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재미있었다. 왜 내가 학창시절에는 이렇게 재밌는 작품을 읽지 못했을까 원망이 될 정도였다.

... 첫 책이 나온 후 다음 글은 무엇을 쓸까 고민이 되었다. 내 이야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그때는 20대 중반이라, 십대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시기였다. 아니, 여전히 나는 사춘기가 진행 중이었다. 나의 고등학교 때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고, 청주여고를 배경으로 하여 『닌자걸즈』를 썼다. 청주여고에는 교화를 탄 ‘백합반’이라는 심화반이 있었다. 백합반을 모란반으로 바꾸었다. 고 2 여학생 네 명이 각각의 사연으로 모란반을 없애는 내용이다. 실제 내가 고등학생 때 심화반을 없애려는 투쟁을 한 적은 없다. 하지만 백합반에 관한 주제가 나오면, 친구, 자매들은 모두 다르게 추억했다. 재학 중일 때도 그랬지만, 졸업을 하고 보니 백합반이 무척 이상하게 느껴졌다. 백합반이 아니라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백합반에 속하기에 백합반을 없애려는 주인공 ‘고은비’는 나를 많이 닮았다. 뒤늦게 ‘백합반은 이상해요!’라고 말하면서 무척 통쾌했다.

... 세 번째 책 『판타스틱걸』도 또 내 이야기를 하고 말았다. 공모전에서 100여 번을 떨어진 후 나는 작가가 되었고, 작가만 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작가가 되고 나서, 동료 작가들을 알게 되었고 비교가 되기 시작했다. 유명한 작가, 책이 많이 팔리는 작가들이 부러운 날에는 내가 보잘 것 없게 느껴졌다. 슬럼프에 빠져 헤맸고, 문득 그런 생각을 했다. 만약에 10년 전의 내가 지금 이

런 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할까? 당시 나는 27살이었고, 17살의 김혜정이 본다면 화를 낼 것 같았다.

“언니, 원하는 작가가 되었는데 지금 뭐하는 거예요? 유명해지려고 작가 됐어요? 책 많이 팔려고 작가 됐어요? 아니잖아. 그냥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었던 거잖아.”

... 보통 타임슬립 소재는 과거로 돌아가, 과거를 바꾼다. 나는 반대로 10년 후 미래로 가게 된 ‘오예슬’을 주인공으로 삼았다. 소설에서 더 많이 변하는 건 27살의 오예슬이다. 두 명 중 주인공을 한 명만 꼽으라면 27살의 오예슬이다. 사실 17살의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해주지 못했어.

... 어쩌면 내가 십대를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십대가 주인공인 글을 쓰는 건, 그때 17살의 오예슬에게, 17살의 김혜정에게 미안해서 인지도 모른다. 27살의 오예슬과 김혜정만 위로받고 응원 받았으니까.

... 17살의 나는 불안한 것 투성이었다. 증평에서 청주로 지역을 옮겨 고등학교를 가게 되었고, 아는 아이들이 거의 없었다. 마음 맞는 친구도 사귀지 못하고, 성적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고, 공모전에서는 계속 떨어졌다.

나 왜 이거 밖에 못하지. 바보 같아. 좀 더 열심히 해보란 말이야.

스스로에게 많이 화를 냈다. 내가 부족한 거, 못하는 것만 찾았다.

... 지금 17살의 나를 만날 수 있다면, 나는 그 아이를 꼭 안아주고 싶다. 잘 버티고 있다고, 잘하고 있다고, 충분히 괜찮다고 말이다. 이제 겨우 17년 밖에 살지 않았는데, 아직 너무나 어린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은데, 가야할 길이 먼데 왜 그렇게 나 자신에게 차갑게 굴었을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하지만 꼭 해야만 하는 일이 ‘내가 나를 좋아하는 것’이라는 것을 청소년 소설을 쓰면서 깨달았다. 나는 과거 17살의 김혜정도 좀 더 좋아해주고 싶고, 지금의 나도 더 좋아하고 싶다.

... 내가 쓴 소설을 읽으며 독자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 좋겠냐는 질문도 종종 받는다. 와, 잘 썼다, 는 칭찬은 바라지 않는다. 누군가 내 소설 속 인물을 만난 후 “그래, 인생은 한 번 살아볼 만 해.”라고 느끼는 글을 쓰고 싶다.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심장 뛰었고, 뚱뚱한 몸이 부끄러워 숨고 싶었고, 가족 때문에 고민했던 것들, 모두 다

나의 경험담이다.

... 나도 그런 시절이 있었어, 그때 나도 많이 힘들었어. 그런데 괜찮아 지더라. 너도 그럴 거야. 너 지금 제법 잘하고 있어.

이 이야기를 십대 독자들에게 들려주고 싶다. 아니, 사실 이 메시지는 내가 전하는 게 아니라, 독자들의 10년, 20년 후의 그들 자신이 보내는 거다.

... 『판타스틱걸』은 올 해 12월 『안녕? 나야!』라는 제목으로 KBS 드라마로 방영예정이다. 소설이 17살과 27살의 이야기였다면, 드라마에서는 17살과 37살로 바뀐다고 들었다. 우연인지 딱 내 나이에 맞다. 소설을 쓸 때 내가 27살이라 27살로 했는데, 시간이 흘러 나는 37살이 되었다.

... 비록 37살이 되었지만, 나는 여전히 인생이 궁금하고 어렵다. 그럴 때는 과거의, 미래의 나를 생각해 본다. 47살이나 57살의 김혜정도 나에게 말하고 있겠지. 잘 하고 있다고.

...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수고하고 있는 중이다! 부디 자신에 대한 사랑과 응원을 잊지 마시길.



하이킹 걸즈 — 비룡소



판타스틱 걸 — 비룡소



닌자걸스 — 비룡소

나를 바꾸고 세계를 변화시키는

독서의 힘

글 유정환 시인, 도서출판 고두미 대표
삽화 연규상



사실 나는 도서관하고 거의 인연이 없다. 언필칭 글쟁이를 자처하는 처지로 보아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 결코 흰소리가 아니다. 읽고 싶은 책은 꼭 사서 보는 못된(?) 버릇이 있어서, 대학 시절부터 리포트나 논문을 쓰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는 일 말고는 도서관 신세를 진 일이 없다. 심지어 열람실에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도 없는데, 사람들이 시험 때마다 자리를 차지하려고 새벽부터 줄서기 하는 걸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면 더 말할 것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근래 몇 년 동안 시립도서관에서 독서 동아리 멘토 역할을 하거나 이런저런 행사에 참여한 건 ‘별일’에 속한다. 도서관 일인 줄도 모르고, 같이 읽을 만한 책을 추천해 달라는 친구의 말에 무심히 감명 깊게 읽은 책 몇 권 중얼중얼한 것이 빌미가 되어 불러 나가게 된 셈이니 그 곡절 또한 맹랑하기 짝이 없다. 하여간 나의 독서가 체계 없이 충동적이기도 하려니와 평소 낮가림이 심해서 웬만하면 혼자 노는 걸 편안하게 여기는 성격을 감안하면 꽤 놀라운 사건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다.

—
그런데 정작 놀라운 일은 도서관에서 보게 되었다. 우선 책을 읽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것. 그 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느낌을 받은 것은 아마도 내가 우리 사회의 독서 실정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언젠가 우리나라 성인의 35%가 한 해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는 통계를 봤는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보지 않고 막연하게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편견을 갖게 된 것 같다. 더구나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로는 책을 끼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는 풍경을 통 볼 수 없으니 아주 망했다고 비판하게 됐을 텐데, 생각건대 상당 부분은 세상 흐름을 읽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류라고 봐야 할 것이다.

—
더 놀라웠던 것은 책을 읽어도 엄청 읽는다는 사실이다. 읽는 게 아니라 ‘읽어 댄다’고 해야 할 만큼 많이 읽었다. 독서 동아리에 참여하는 회원들은 문

학, 역사, 철학 분야별로 1년 동안 읽어야 할 목록을 정하고 격파하듯이 읽어 나갔다. 2개 이상의 동아리에 참여하는 회원도 많았고, 더러는 다른 도서관 모임에도 나가는 눈치였다. 자료를 보니 다른 도서관의 사정도 비슷해서 대개 서너 개의 동아리가 운영되고 있었다. 아이들을 위해서 동화를 읽는 어머니 모임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띄긴 했지만, 대체로 인문학 분야를 섭렵하는 중이었다.

—

독서를 입시공부 하듯 하다니! 이것이 이른바 ‘인문학 열풍’의 단면인가 생각하니 적잖이 혼란스러웠다. 주로 혼자 물 흘러가듯 느릿느릿 읽고 살았던 내게는 일종의 ‘시스템’으로 인식됐기 때문이다. 입시 시스템으로 완고하게 자리 잡은 학교교육처럼 말이다. 늦어도(?) 중학교 때부터 신발 끈을 조이고 너나없이 대입을 위한 장도(壯途)에 오르는 학생들. 이런저런 학원을 드나드는 건 기본이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거수일투족 학생부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모양은 컨베이어 벨트를 따라가며 조립 공정을 거치는 제품의 대열과 흡사하다. 그런 교육풍토의 흐름에는 당연

히 정부의 정책과 교육계의 경직된 사고가 작용하겠지만, 내 아이가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하는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들이 시집이나 소설을 읽는다고 가정해 보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러느냐, 내가 왜 막일을 다니는 줄 몰라서 이러느냐……, 큰일이라도 만난 것처럼 당장 엄마의 일장훈시에 장탄식이 이어질 게 뻔하다. 그럴 때 독서는 곧 배은망덕이요 패륜이다. 대학이라고 해서 고등학교보다 사정이 나은 것도 아니다. 성인이 된 학생들은 이제 엄마의 잔소리가 없어도 스스로 취업전쟁에 뛰어들어 청춘을 불태운다. 컨베이어 벨트의 흐름 위에 있을 때 가장 편안하고 벗어나면 불안하다. 학교는 학교대로 취업률이 낮다는 이유로 인문학 분야 학과를 없애거나 통폐합하는 일을 예사로 단행한다. 인생 - 아, 그놈의 인생이란 건 대체 무엇인가 - 을 포기하지 않고서야 언감생심 독서라는 걸 할 수 있겠는가. 그런 일사불란한 우여곡절 끝에 그들이 다시 학부모가 되어서 일련의 과정을 심화해 간다. 일정한 성취가 있는 사람은 있다는 이유로, 없는 사람은 없다는 이유로 경쟁 시스템의 화신(化身)이 되는 것이다.



—

그러니 학교 밖의 ‘인문학 열풍’이 다소 당혹스러운 것인데, 나는 그것 또한 학교 안과 같은 구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남들이 다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고 있다, 남들은 다 가진 걸 나만 안 갖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참지 못하는 심리, 그것은 ‘비교’와 ‘소비’의 수레바퀴로 굴러가는 자본주의 속성과 꼭 닮았다. 남들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해 언급하는 걸 들으면 초조해져서 그걸 읽어야만 직성이 풀린다. 그런 마음들이 불어나서 신드롬이 생기고 책이 불티나게 팔리는 걸 보면 우리 사회의 ‘정의’가 선명해지지 않는 게 의아스러울 지경이다.

—

어떤 현상을 나름대로 읽고 해석해 보자니 중언부언 길어졌다. 이유야 어쨌든 나는 책을 읽는 사람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책이 인간 정신활동의 중요한 도구이며 사유와 창조의 힘이 책 읽기에서 시작된다는 말에 공감하니까.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가 책 읽는 것이라고 믿으니까. 다만 경쟁하듯이 무턱대고 많이 읽는 것보다 천천히 음미하며 책을 즐기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전자가 틀렸다는 게 아니라 독서하는 일조차 기계처럼 하는 걸 경계하려는 마음이다.

—

놀라운 얘기를 하나 더 하자면, 우리 사회에 독서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참 다양하고 촘촘하다는 것이다. 청주시만 해도 전역에 분야별로 특성화된 작은 도서관이 130여 개나 운영되고 있으니 집에서 가까운 곳의 문을 두드리기만 하면 된다. 특히 시립 도서관의 지원은 전폭적이다. 도서관에서 일하는 분들은 어떻게 효율적으로 도울까 방법을 찾느라고 늘 고민한다. 개인에게 책을 빌려주는 건 당연하고, 도서관 내·외부에서 활동하는 독서 동아리를 지원하고, 흥미로운 강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신간을 신청하면 며칠 내로 준비해 주는데, 그걸 기다리기 힘든 시민들이 동네서점에서 구입해서 읽

고 일정 기간 내에 반납하면 책값을 되돌려주는 ‘북페이백(book payback)’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렇게까지 해서 책을 읽도록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다. 독서 동아리 지원센터라는 곳도 있어서 모임 때 요청하면 밥을 사준다는 말을 들은 적도 있다. 정말 이렇게까지? 좋은 환경을 생각하면 왜 독서인구가 줄어드는 건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

한편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찍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도록 교육정책을 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가, 안 되면 왜 안 되는 걸까, 그런 의문도 끊이지 않는다. 아이들이 원치 않는 학습을 왜 필요 이상으로 시키고 시험으로 줄을 세워야만 하는지 모르겠다. 읽기가 안 되는데 쓰기를 어떻게 하며, 듣기와 말하기가 안 되는데 어떻게 민주시민으로 성장한단 말인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능력이야말로 대화와 타협으로 이루어 가는 민주주의 제도의 기본 아닌가. 나는 독서가 그것을 가능하게 해준다고 믿는다. 정작 필요한 건 밀쳐두고 영어·수학 점수 올리느라고 돈과 시간을 다 써버리는 어리석은 짓을 언제까지 해야 하는 걸까.

—

읽는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 즉 세계를 이해하는 일이다.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함께 살아야 하므로 읽어야 하는 것인데, 독서는 그 ‘읽기’의 시작이며 ‘읽는’ 능력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이 질문하는 것, 너(세계)를 읽고 나를 끊임없이 바꾸어 가는 것, 아는 만큼 실천함으로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그 ‘혁명적인 소통’이 독서하는 이유이자 인문학이 필요한 이유다. 부모가 인문학 도서 목록을 받아 들고 ‘경쟁적으로’ 책을 독파해 가는 동안 아이들은 학원을 전전하는 부조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면, 그런 독서의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100년을 바라보는 청주 공공 도서관의 역사

글 도서관여행자 이혜숙·백창민

청주에 ‘근대도서관’이 문을 연 시점은 언제일까요? 1925년 3월 10일 《동아일보》는 ‘청주도서관의 열람 상황’이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청주도서관’은 충청도청 안에 ‘도립도서관’으로 존재했습니다. 당시 충청도청은 지금의 위치가 아닌 중앙공원 자리에 있었습니다. 충청북도 최초의 공공도서관 탄생지는 청주 중앙공원이었던 셈입니다.

《동아일보》 기사는 1924년 청주도서관에서 책을 대출한 사람 수와 대출 권수, 열람자 수를 함께 보도하고 있습니다. 1924년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5,830명이 7,635권을 빌렸고, 열람자 수는 1,093명이었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통계가 없는 걸 보면, 1924년 4월에 도서관이 문을 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당시 청주도서관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분야는 문학과 소설이고, 그 다음은 아동물입니다. 96년 후인 요즘 대출 경향과 비교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듯 싶습니다.

1914년 ‘청주면’이었던 청주는 1931년 ‘청주읍’이 되었습니다. 조선도서관연구회에

충북 최초로
‘근대도서관’이
세워진 곳,
청주

서 발행한 《조선지도서관》朝鮮之圖書館 제4권 제6호는 1934년 4월 10일 현재 충청북도에 소재한 유일한 도서관으로 ‘청주읍립도서관’淸州邑立圖書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청주읍립도서관은 1931년 9월 문을 열었고, 청주읍 동정東町에 있었습니다. 이름처럼 청주읍이 세운 ‘공립도서관’이었습니다. 충북도청 안에 있던 청주도서관이 이전하면서, ‘읍립도서관’으로 새롭게 문을 연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읍립도서관 개관 소식을 보도한 1931년 9월 4일자 《동아일보》 기사를 요즘 말투로 다듬어 옮겨 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침체 상태에 있던 청주도서관을 이번에 청주시가 공원 안에 이전하여 청주읍 경영으로 오는 9월 5일부터 개관하게 되었다. 열람의 종류는 관내열람, 관외열람 2종으로 그 수속과 주의사항은 관내에 게시하였다. 개관시간은 4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11월부터 3월 말일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매주 월요일과 축제일 다음날과 12월 28일부터 1월 5일까지는 휴관한다고 한다.”

청주읍립도서관이 이전한 ‘공원’은 어디일까요? 이보다 한 해 앞서 《동아일보》는 1930년 4월 3일 자 기사로, 나가타니 도쿠타로長谷德太郎가 7천 평 공원 부지를 낙찰받아 정구장과 야구장, 물산장려관과 도서관을 조성한다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여러 기사에 따르면 청주읍립도서관이 문을 연 곳은 ‘동공원’東公園입니다. 1917년 무렵 발행된 「청주면 지도」는 지금의 충북도청 동쪽 ‘당산공원’을 ‘동공원’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충청도 지역에서 청주도서관보다 먼저 문을 연 도서관이 3곳 있습니다. 충남에서 문을 연 강경도서관(1915년), 논산문고(1919년), 홍성간이도서관(1922년)은 모두 민간이 세운 ‘사립도서관’이었습니다. 청주도서관으로 출발한 청주읍립도서관은 공공기관이 세운 ‘공립도서관’으로는 충청남북도를 통틀어 처음 개관한 공공도서관입니다.



1 충청북도 첫 공공도서관이 문을 연 청주 중앙공원. 당시 청주도서관은 충청도청 안에 있었습니다 ◎ 백창민

2 1931년 청주읍립도서관이 자리한 곳으로 추정되는 당산공원. 당시 이름은 ‘동공원’이었습니다 ◎ 백예봄



충청도 최초
공립공공도서관
이었던
‘청주도서관’

1934년 4월 10일 시점에 청주읍립도서관의 직원 수는 3명이고, 장서량은 3,290권이었습니다. 읍립도서관 전환 3년 만에 장서가 꽤 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시점에 충청남도에는 4개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충북의 경우 충남에 비해 도서관 개관이 늦었고, 도서관도 청주읍립도서관 1개관 밖에 없었습니다. 도서관 수는 충남에 비해 적었지만, 장서와 이용자 수는 청주읍립도서관이 월등했습니다. 충남에 있던 4개 도서관의 장서를 모두 합쳐도 2,644권이었으니까, 청주읍립도서관의 장서량과 규모는 작지 않았습니다. 청주읍립도서관은 연중 288일 동안 문을 열었고, 이용자는 연간 4,760권을 열람했습니다. 도서관 전체 예산 808원 중 도서비는 580원, 인건비는 108원이었습니다. 청주읍립도서관을 이용하는 연간 이용자 수는 12,611명이었고,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44명이었습니다. 1934년 당시 충북(청주읍립도서관)보다 하루 이용자 수가 많은 지역은 경기도, 평안남도, 함경남도, 전라남도뿐이었습니다. 청주 읍민이 도서관을 활발히 이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에서 유일한 ‘근대도서관’이었던 청주읍립도서관은 그후 어떻게 되었을까요? 1955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펴낸 『한국도서관일람표』는 청주에 공공도서관이 한 곳도 없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청주읍립도서관 운영이 중단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56년판 『한국도서관일람표』에 ‘청주시립도서관’이 등장합니다. 설립년도는 1956년, 장서는 1,433권, 열람석은 80석, 직원은 4명이고, 관장은 송문헌이었습니다. 1956년 문을 연 청주시립도서관은 동공원이 아닌 ‘청주시 남문로 2가 102번지’에 있었습니다. 지금의 중앙공원 충청도병마절도사영문(忠淸道兵馬節度使營門) 남쪽입니다.

1969년 ‘공공도서관대회’는 9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간 청주시립도서관에서 열렸습니다. 당시 도서관대회는 지금처럼 같은 장소에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공공/대학/학교/특수도서관대회가 관중 별로 날짜와 장소를 달리해서 열렸습니다. 1972년 『한국도서관통계』까지 이름을 올렸던 청주시립도서관은 1977년 『한국도서관통계』부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1985년 5월 15일 청주시립도서관은 문을 닫았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의 직원 1명과 장서 32,620권은 1979년 문을 연 충청북도학생도서관(지금의 충청북도교육도서관)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청주시립도서관은 폐관하긴 했지만 직원과 장서를 승계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부터 이어온 ‘청주도서관’의 명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1917년 청주면지도. 당시 충북도청은 지금의 중앙공원 자리에 있었고(녹색 표시 위치), 1931년 청주읍립도서관은 ‘동공원’, 지금의 당산공원에 문을 연 건물로 추정됩니다(파란색 표시 위치).

4 1956년 다시 문을 연 청주시립도서관이 있던 곳(청주시 남문로 2가 102번지) © 백창민

청주가 훌륭한
도서관 인프라를
구축한 이유는?

- 5 청주 대학도서관 중 가장 역사가 오래된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 1947년 문을 열었습니다 © 백예봄
- 6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불조직지심체요절』을 발간한 청주 홍덕사지 © 백예봄
- 7 청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충청북도교육도서관. 1979년 개관했습니다 © 백예봄
- 8 2003년 ‘청주시립정보도서관’으로 문을 연 청주시립도서관 © 백예봄

2020년 현재 청주시에 있는 도서관 중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은 1979년 12월 18일 문을 연 ‘충청북도교육도서관’입니다. ‘충청북도학생회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연 충청북도교육도서관은 가장 오래된 도서관답게 책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습니다(571,069권). 교육청 소속인 ‘충청북도교육도서관’과 ‘미원교육도서관’(1988년), ‘충청북도교육문화원’(1990년)을 제외하면, 시립도서관 중에는 ‘옥산도서관’(1996년)이 가장 빨리 문을 열었습니다. 대학도서관 중 가장 오래된 곳은 1947년 6월 6일 문을 연 ‘청주대학교 중앙도서관’입니다. 1377년 청주 홍덕사興德寺에서 발간한 『불조직지심체요절』佛祖直指心體要節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공인 받았습니다. 청주시 운천동에서 발견된 ‘홍덕사지’는 우리 인쇄출판 역사가 장구함을 알려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그런 빛나는 인쇄출판 유산의 터전이 기 때문일까요? 충청북도 최초의 근대도서관도 청주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지금의 청주시립도서관은 2003년 9월 4일 ‘청주시립정보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비도서를 포함해 280,125권의 장서를 자랑하는 청주시립도서관은 충청북도 교육도서관을 제외하면, 충북에서 가장 많은 장서를 지닌 도서관입니다. 오늘날 청주는 수많은 공공도서관이 자리하고 있고, 이 나라 어느 지역에도 부족하지 않은 도서관 인프라를 자랑합니다. 청주가 책과 관련된 빛나는 문화유산과 독서 인프라를 갖춘 것은 책을 사랑하는 청주 시민과 도서관을 일군 사서의 노력 덕분일 겁니다. 1924년 청주도서관에서 출발한 청주의 ‘공공도서관’ 역사는 이제 100년을 바라봅니다.





품앗이 육아 독서동아리에서

글 박주은님(상당구 용담동)

2010년, 나의 첫 아이 이자 마지막 아이가 태어났다. 당시 양가 집안에서 모두 첫 손주라 내게 육아 선배님들 이라곤 양가 부모님들뿐이었다. 물론 부모님들께 배운 것도 많았지만 새로운 물건들에 대한 사용법이나 새로운 정보와 시스템등에 관해선 시행착오도 많았다. 아이가 자라 학교라는 공교육에 발을 들이면서 난 또다시 양가 집안의 21세기 첫 학부모가 되었다. 공교육의 출발점에서 어떻게 키워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다. 주변 선배엄마들의 인성이 최다, 교과목은 저학년 때부터 잡아야 한다, 시간이 제일 많을 때니 예체능을 많이 시켜라 등등 조언이 쏟아지고 있을 때 유독 마음에 드는 것이 “책이 이 모든 걸 아우른다”라는 말이었다. 그즈음 우연히 소수의 같은 반 학부모들을 만나게 되는

운명의 날이 있었다. 하나같이 첫아이를 둔 엄마들이라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막무가내인 나의 성격대로 “혹시 품앗이 독서동아리 해볼 생각 있어요?”라며 들이댔다. 그 날 만난 엄마들의 눈빛이 하나같이 따뜻해 보였기에 용기 내 보았다. 다행히 내가 들이대던 모든 엄마들이 전부 오케이 사인을 하였고 내 아이의 배꼽 친구들과 성당친구까지 합세 해 [책 파먹기]라는 품앗이 동아리가 꾸러지게 되었다. 격주로 토요일에 만나 엄마들이 돌아가며 수업하기로 했다. 수업 전에는 모두들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들이 가득했다. 허나 막상 닥쳐보니 나름 한창때 날렸던 여러 재능들을 살려 책을 읽고 나서 만들기, 요리해 보기. 실험하기, 토론하기 등 여러 다방면의 감각을 활용하는 수업으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사기 충분했다.

이후에는 더 나아가 직접 방문하고 체험하는 활동도 이어나갔다. 예술관련 책을 공부하고 근처 미술관으로 체험을 가거나 숲 교실을 신청하여 자연과 만나보거나 눈을 가리고 시각장애인 체험을 하며 이성발달관련 활동도 하였다. 또한 우리 아이의 초등학교에 엄마 독서동아리관련 책놀이 일일교사로 활동 하는 기회도 생겼다. 물론 학년이 올라가면서 좀 더 학교학습에 집중하거나 사교육을 시작하는 친구들의 담백한 탈퇴도 있는 대신 그만큼 2기, 3기들이 충원되며 그 전 기수 친구들 모두 현재까지 즐겁게 만남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러한 경험들은 내게 자신감을 심어주어 뒤늦은 나이에 독서논술 자격증에 도전해 현재는 동네에서 작은 논술 공부방을 차리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다. 또한 품앗이

논술 선생이 되기까지!

동아리 특성상 아이들과 책 관련 여러 활동들을 하며 갖게 된 인성교육과 인간심리에 대한 탐구를 하면서 독서심리 상담도 공부 하게 되었다. 현재는 독서심리상담 강사로 청주 관할 도서관에서 어린이들과 그림책 테라피 수업도 맡게 된 멋진 일도 생겼다. 온라인 관계성이 높아지는 요즘이지만 역시 사람은 서로 직접 만나고, 만나서 부대끼고, 부대끼면서 같이 느끼는 경험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경험은 아이들뿐 아니라 엄마들에게도 강한 의미를 부여한다. 많은 초보 엄마들에게도 품앗이 독서동아리를 도전하시길 추천 드리고 싶다.

팬데믹 이후 중년 백수의 품격 있는 오늘을 살기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를 읽고

글 권순예님(서원구 수곡동)

지난 2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곳에 방역이 시작된 후로, 나는 소위 말하는 ‘중년 백수’가 되었다. 코로나 19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결정된 휴직은 막연한 두려움과 곧 해결되겠지라는 무책임한 긍정으로 벌써 6개월이 되었다. 그동안 직장맘이라는 방패로 두 아이의 생활을 다소 방만하게 방치했던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다. 경제적인 부분을 의식너머 제쳐두고 ‘어차피 흘러가는 시간 뭐라도 하면 뭐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니, 시간에 얽매이지 않아 마음에 여유가 생겼고, 마음의 여유는 아이들에게 관대하게 했으며, 맘껏 엄마와의 시간을 누리는 아이들은 좁아진 생활 환경에서도 나를 규칙적인 일과를 보내고 있다. 오랜 만에 가족과 나를 위해 쓰는 백수의 긍정적인 시간들은 일상의 소소한 재미와 소중함을 주고 있다.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학습 내용을 알아가고, 내가 질문하는 것들을 아이들이 기꺼이 가르쳐주며, 서로에게 스승과 학생의 역할을 바꿔가며 아이들과 나는 똑같은 초등교육을 받고 있다. 내가 우쿨렐레를 연습할 때면 아이들이 박자를 맞추어 주고 노래를 부르며 음 높이를 알려준다.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문제를 풀다 물어보면 아는 것은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간들도 즐겁다.

이처럼 현재를 고민하고 숙고하는 시간 속에 『조선에서 백수로 살아남기』의 저자 고미숙 선생님은 말한다. ‘삶은 오직 현재 뿐이다. 현재 안에 과거와 미래가 동시적으로 구현되기는 하지만, 결국 삶의 현장은 오늘이다. 그 누구도 어제를 살 수 없고 내일을 살 수 없다. 태어나는 것도 그 어느 ‘오늘’이고 죽는 것도 그 어느 ‘오늘’이다.’

저자가 말하는 ‘삶의 현장은 오늘이다.’라는 말에는 오늘의 열정과 소중함, 더불어 긍정의 시간까지 느껴진다. 한동안 ‘올로’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You only live once’라는 문장은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요시하고 소비하는 생활을 말한다. 올로죽은 막연한 미래를 위한 투자보다는 지금 당장 삶의 질을 높여주는 취미나 자기개발을 위해 돈을 쓴다. 이는 저자가 백수들에게 건네는 ‘삶의 현장은 오늘이다’라는 말과는 거리감이 있다.

저자는 백수의 활동과 즐거움, 재미에 대해서 말한다. 직업도 돈도 없는 백수도 오늘을 살고 즐길 수 있다고 이야기 한다. 노동의 소외에서 벗어나 자신을 탐구하고 주변과 관계를 맺으며, 더불어 활동의 산물을 찾고 재미를 찾으라고 말한다. 진정한 백수는 어쩌다 정규적으로 일할 때나 단기 프리랜서로 활동할 때

나 삶의 기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말한다. 나와 주변을 돌아보며 정도를 지키는 삶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나또한 백수라는 상황과 경제적 여건을 떨어뜨려 생각하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현실의 막연한 두려움을 받아들이기까지 여러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

모두들 뉴노멀New Normal 시대에 따른 새로운 생활 방식과 태도에 대해 이야기 한다. 마스크 쓰는 것이 당연시 되고, 상대방과의 거리두기가 익숙해지고 있다. 2미터의 물리적 거리는 안전한 거리가 되었고, 악수를 나누는 것은 옛이야기가 되었다. 이전의 세상과 확연히 달라진 생활 방식들은 우리를 빠르게 지치게 하고 쉽게 우울감에 빠지게 한다. 그러나 이 시간 또한 누구에게나 같은 속도로 흘러간다. 시간은 누구나에게 공평하지만, 아차 하는 순간 적으로 돌아서 버린다. 중년의 나이가 되고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나에게 가장 커다란 적은 시간이었다. 그저 모르고 속절없이 흘러보낸 시간이 가장 커다란 후회들로 남는다.

다들 코로나 19 이후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기록한다. 나도 그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고민하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이 시간들이 어떠한 기억으로

남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 속도가 눈에 띄지는 않을지라도 벌써 여기까지 와 있고, 우리는 삶의 기본을 지키며 품격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지금 나와 마주보고 있는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착한 일을 행하는 일이다.’라는 톨스토이의 말처럼, 저자도 우리에게 지금 오늘을 살라고 이야기 한다. 백수라는 이름을 당당히 받아들이고, 지금의 자신을 진솔하게 제대로 마주치라고 한다. 당장 유행하는 것들의 유혹에서 벗어나면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오는 비루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 끊임없이 질문하고 배워가며 오늘을 살아가다 보면 삶은 소소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선물할 것이다. 지금도 현재를 고민하고 있을 모든 백수에게 저자처럼 연암 박지원의 문장을 전하고 싶다.

‘그대는 나날이 나아가십시오. 나 또한 나날이 나아가겠습니다.’



슈테판 츠바이크의 ‘초조한 마음’

글 구경자 님(상당구 용암동)

생활 속에 늘 책을 벗 삼아 지내는 옛 친구가 있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친구는 습관처럼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도 독서를 즐기는 일상이 곁에서 보기에든 부러웠다. 얼마 전,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라며 한번 읽어 보기를 추천해 주었다. 감성적인 심성 탓인지 들뜬 호평이 기억에 남아 당장 읽어 보고 싶은 호기심이 들었다. 추천한 도서는 오스트리아의 작가 슈테판 츠바이크의 ‘초조한 마음’이라는 책이다. 선입견 탓인지 호기심 탓인지 책은 쉽게 읽혀졌다. 좋은 영화를 보고 나면 오래도록 잔상이 남듯 책장을 넘기면서 행간의 울림이 한동안 이어졌다.

‘초조한 마음’은 심리묘사에 초점을 둔 내면적 장편 소설이다. 누구나 느낄 수 있으나 말로 하기 힘든 감정을 날카로운 관찰력과 투시력으로 묘사해 작가의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이 소설은 독자에게 들려주는 ‘연민’에 대한 이야기다. 연민의 사전적 의미는 불쌍하고 가련하게 여긴다는 뜻이다. 우리는 처지나 형편이 조금 나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힘이 부족하거나 약한 사람을 동정한다. 그 마음을 연민이라 여긴다. 비록 고통을 함께 느끼거나 나누지 못하지만, 인간적으로 남의 처지를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선한 행동이라 인식을 한다. 하지만 스스로 연민의 상대를

바라보며 본의 아니게 우월감에 빠져든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에 가깝다는 사실은 깊은 공감을 주었다.

소설은 주인공인 호프밀러와 의사인 콘도어 박사가 믿고 행동하는 연민이 개인의 삶과 얽혀 전개된다. 이야기는 호프밀러가 헝가리의 케케스팔바의 성으로 초대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파티에서 호프밀러는 성주의 딸 에디트를 만나게 된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에게 다가가 정중히 춤을 청하지만 손을 내밀고 보니 그녀는 다리를 온전히 쓸 수 없는 불구였다. 당혹감을 느낀 호프밀러는 심한 죄책감에 사로잡힌다. 이후, 그녀에게 연민으로 다가가 끝없는 노력과 정성을 다한다. 그 후에도 그녀에게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희망을 심어주고 언젠가 꼭 완치될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한다. 하지만 에디트는 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결국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소설에서 암시하는 것은 호프밀러가 품은 연민의 감정은 남의 불행에서 느끼는 미안함과 불편함이다. 그런 감정에서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초조한 마음이 연민으로 표출된 것이다. 그런 연민은 모순적인 속성이 있어 쉽게 눈치채지 못한다.

한편 의사 콘도어 박사가 믿는 연민은 다르다. 과거 자신의 환자였던 눈먼 여인을 치료하려다 실패를 한

다. 그는 그 책임을 지기 위해 그 여인을 아내로 맞는다. 그리고 그녀의 일생을 돌보며 함께 살아간다. 그의 연민은 감상적이지 않고 책임을 다하는 연민이다. 콘도어 박사는 호프밀러가 연민의 감정으로 상대에게 기대를 품게 하고 결국 불행으로 치닫게 하는 이기심과 나약함을 들춰낸다. 좋은 사람이고자 하는 감상적인 연민이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준다는 사실을 모른 채, 행동이 동반되지 않은 연민에 대한 집착을 꼬집는다. 책임이 부재한 연민은 불행한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준다고 콘도어 박사는 믿고 있다.

인간은 본능적인 이기심과 나약함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 하지만 연민을 베풀어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는 욕심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얼마나 될까. 책을 덮으며 책임감이 부재한 연민과 진정한 연민의 딜레마에 빠져든다. 작가는 두 주인공을 통해 연민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왜곡된 연민을 파헤쳐 진실에 닿고자 한다. 그리고 연민의 두 얼굴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주제를 독자에게 던져 주었다. 심리묘사의 뛰어난 감각과 통찰력은 슈테판 츠바이크의 다음 작품을 찾게 되는 이유다.



현명한 엄마 되기 연습

『왜 아이에게 그런말을 했을까』를 읽고

글 이고은님(홍덕구 강내면)

서울대에 보낸 부모가 쓴 책이다. 서울대를 보냈음에도 사이가 좁혀지지 않았다고 하다.

똑똑하게 키우는 법을 알았지만,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던 부모의 뒤늦은 반성문 같은 책이다. 그래도 서울대 합격한 자녀를 두었으니 부럽긴 하다. 책을 읽고 나니 지금쯤 아마 사이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본다. 아마 작가는 지금부터라도 후회하는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까. 지금 나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정보육 중이라 아이들과 지내고 있다. 그러다 보니 화내지 않고 기다리고 격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기본 중의 기본을 자꾸 잊어버린다. 이 책은 내가 육아의 기본을 다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위로하는 순서

아이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듣는다 ▶ 위로한다 ▶ 응원한다.

빨리 아이를 위로하기 위해 듣는 과정과 위로하기 과정을 놓쳐서는 안 된다. 우선 듣고 위로한 후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자! 나는 우리 아이가 무섭다고 이야기하면 ‘괜찮아. 안 무서워’라고 대답했다. 무서워할 수 있는 데 무서워하는 아이 감정을 부정해버렸다. 무서워서 무섭다고 말한 아이에게 안 무섭다고 하면 아이에게 위로일까? 응원일까? 자신의 감정을 무시하

는 말이었을까?

“우리 형편에 그런 거 못 사”

우리 아이는 아직 마트에서 장난감을 사달라고 떼를 써본 적이 없다. 그런데 종종 떼쓰는 아이와 말리는 부모를 보게 된다. “돈 없어”, “다음에 사줄게”, “너 계속 그러면 두고 간다.”라고 얘기하는 부모를 볼 수 있다. 돈이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 집은 남들과 달리 가난하고 그래서 나는 이런 장난감을 갖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아이의 자존감을 떨어트린다고 한다. 다음에 사줄게라는 지켜지는 약속도 부모와 아이 사이에 신뢰를 무너트릴 수 있으며 두고 간다는 말을 아이에게 공포심을 안겨준다. 아이에게 공포심을 주고 당신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육아에 정답은 없다. 아이의 성향에 따라 육아법도 달라진다. 잘하려고 하면 어긋나는 것 같다. 어찌면 기본만 잘 지키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그 기본을 잊지 말자! 엄마의 말 한마디가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오늘도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며,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반성한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덜 반성할 수 길 기대해 본다.



누구에게나 필요한 위로, 희한한 위로



글 이미우 청주오송도서관장

희한한 위로를 읽고

처음 서평을 쓰게 됐을 때 어떤 책을 선택해야 할지가 제일 큰 고민이었다. 이 고민이 서평을 쓰기 까지 가장 오랜 시간을 차지했다. 사람들에게 친숙한 책을 고를까? 교훈을 줄 만한 책을 고를까? 책읽는 청주 선정 도서를 고를까? 수많은 선택지가 있었다. 고심 끝에 고른 책이 이 책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책은 베스트셀러도 아니고 그렇게 재미있는 책도 아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잔잔한 위로가 되어주었다.

단연,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핫이슈가 코로나19일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명을 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를 빼놓고 이야기를 논하기 힘들 것이다. 그래서 이런 힘들고 답답한 상황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책보다는 쉽게 읽으면서 위로가 되는 책을 소개하고 싶었다.

보통 위로라고 하면 따뜻한 위로를 생각하기 마련인데, '희한한 위로'라니... 제목에서 일단 호기심을 불러 일으켰다. 저자는 위로가 '작정하고 내뱉어진 의도된 말에서보다는, 엉뚱하고 희한한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라고 말한다. 애초에 위로가 작정하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끔씩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위로를 '발견'한다는 것이다. "다 잘될거야" 누군가를 위로할 때 제일 많이 내뱉는 말이다. 하지만 저자는 이 말을 듣고 진심으로 위로받아본 적이 없고, 그 말에 한 번도 안도해본 적도 없고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 말로 인해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희한하고 엉뚱한 곳에서 위로받곤 했다고 말한다. "어떻게든 되겠지"라고 농담처럼 내뱉은 친구의 말에 도리어 위로를 받기도 하고, 무심코 틀어놓은 영화로도 위로받기도 한다.

내가 위로를 받은 적이 언제인가 곰곰이 떠올려보았다. 나에게도 기억에 남는 위로는 잘 될 거라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무심코 틀어놓았던 TV

로부터 흘러나온 노래, 음악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순간이었다. 몇 개월 전 TV채널을 돌리다 우연히 영화시상식을 보게되었다. 축하무대로 아역배우들이 나와서 '당연한 것들'이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 노래는 가수 이적이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희망을 꿈꾸자는 의미를 담아 만든 노래였다. '당연한 것들을 기다립니다'라는 아이의 손글씨와 함께 시작한 노래는 당연한 것들이 실은 감사한 것이었다는 깨달음을 담은 가사와 순수한 아이들의 목소리가 어우러져 더욱 감동적이었다.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것은 간주 사이에 나오는 영화의 대사 "본래 별 게 아닌 게 제일 소중한 거예요"라는 말이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이 너무 와닿았고, 마음 한 구석에 작은 위로가 되었다. 또한 이런 감정을 나만 느낀 것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도 느끼며 눈물까지 흘렸다고 하니 위로를 나누는 느낌이 들었다.

이렇게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은 작은 것에 위로를 받기도 한다. 그러나, 저자는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 이 글을 쓴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저 당신의 위로를 '발견'하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썼다고 말한다. 나도 내 글을 통해 누군가 조금이나마 위로를 '발견'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싶다.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답답함, 우울감을 느끼는 건 나뿐만이 아닐 것이다. 지금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한 감정을 느끼고 있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불안정감과 무기력함이 사회 전반에 팽배해졌다. 시민들의 심리적 어려움은 이제 불안감을 넘어 분노로도 번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분노감, 바로 '코로나 레드'이다. 감염병 확산으로 일상생활에 큰 변화로 인해 생긴 우울감인 '코로나 블루'에 이어, 감정상태가 분노에까지 다다른 감정 상태인 '코로나 레드'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심리 방역'을 강조한 것도 이러한 우려의 연장선상에 있다. 전문가들은 나이,

세대, 성별을 가리지 않고 영향을 끼치는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는 심리 방역에도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의 방역이 필요하고, 이러한 심리 방역을 위해서 위로가 도움이 될 것이다.

솔직히 나는, 남들이 보기엔 부러울 것 없는 삶 같지만 주위 사람들을 보며 가끔 '그래도 너는, 여유가 되니까 취미 생활도 하지, 그래도 그 사람은 자유롭게 여행만 다니니 얼마나 좋겠어' 그래도 너는, 그래도 너는, 이란 말을 무의식적으로 많이 한다. 남과 비교하는 게 안 좋은 것임을 알면서도 나 스스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힘들어지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나만 힘든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보면 쉽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게 타인을 '인정'하는 것이다. 나의 힘듦을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위로를 받을 수 있지만, 타인을 인정함으로써 나를 괴롭히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편해질 것이다.

이 책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한 사람을 키우는 데는, 한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 마을은 절대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진 않는다. 당신이, 발견해야 한다"이다. 저자는 여러 번의 실패와 시행착오, 긴 시간을 지나 이제야 나의 마을을 '발견'했다고 한다. 나만의 마을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저자가 최종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인 것 같다. 저자가 말하는 '마을'의 의미를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쉽게 생각해 보면 나만의 아지트를 의미하는 것 같다. 그곳이 물리적 공간이든, 심리적·정신적 공간이든 간에 말이다. 그 마을 속에서 힘든 순간에는 위로를 받고, 힘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나의 마을은 어디에 있을까? 아마 우리 집인 것 같다. 가족들과 함께 편하게 웃을 수 있는 공간,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잊혀지는 순전히 나만을 위한 공간, 이 공간이 바로 나의 마을이다. 이 질문에 대해 정해진 답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느끼면 될 뿐이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내 마을이 어디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다. 마을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어쩌면 내가 발견하기 전부터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살아가기 너무 바빠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힘들고 지쳐서, 이 마을을 돌아볼 생각조차 못했던 것일수도 있다. 이제 한 번쯤은 주위를 둘러보면서 내 마을을 찾았으면 좋겠다.

주위 사람들 대부분은 그럴 것이다. 우리는 모두가 부러워할 만큼 대단히 행복한 삶도, 모두의 동정을 받을 만큼 대단히 불쌍한 삶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서 살고 있다. 조금 행복한 날도 있을 것이고, 조금 우울하고 슬픈 날도 있을 것이다. 그 사이를 왔다갔다하면서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지금의 상황도 그렇다. 힘든 날도 있으면 좋은 날도 있는 것이다. '인생사 새옹지마'라는 말처럼, 나쁜 일이 있었으니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도 열심히 묵묵하게 살아가면 된다. 더불어 코로나 상황도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하루빨리 백신이 나와 이전의 평범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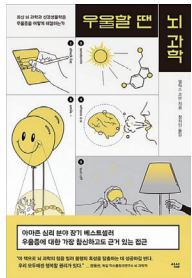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거예요. 우리 힘껏 웃어요"

이 노래 가사처럼 다시 웃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

<도서관과 책> 서고문을 열다 (주제서평, 북큐레이션 연계)

코로나 블루, 다시는 만나지 말자! 우울감 공략을 위한 열 권의 책!

글 민혜영(오창도서관 사서)



우울할 땐 뇌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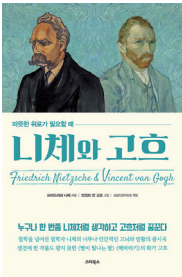
최신 뇌과학과 신경생물학으로 보는 마음의 감기 우울증.

- * 생활이 긍정적으로 변하면 신경도 따라서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중략) 어떤 작은 변화라도 뇌가 상승나선의 시동을 거는 데 필요한 바로 그 힘이 될 수 있다.

* 15page

- * 최선의 결정이 아니라 그럭저럭 괜찮은 결정을 내려라.

* 154page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 : 니체와 고흐

힘든 삶에 영혼의 위로가 되는 치유의 시간을 니체의 글과 고흐의 그림으로 함께하는 책.

- * 과연 그대의 마음 깊숙한 곳이 삶을 긍정하고 있는가? 그대는 만족하는가? 그대는 무엇을 바라는가? 만약 그 대답이 진실이라면 이 잔인한 삶에서 해방될 것이다.

* 62page



음식의 위로

우울할 땐 맛있는 음식만한 것이 없다! 오빠의 죽음으로 우울증에 걸린 저자는 친구의 조언대로 ‘위로 음식’ 투어를 시작하는데.

- * 간절히 잊고자 하는 일에 그 음식이 해결책이나 설명, 해독제, 진정제가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든 간에.

* 50page

- * 이 파이를 통해 나는 새삼 느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나눈 추억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음식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 300page



슬픔은 날개 달린 것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자와 사랑하는 엄마를 잃은 두 아이가 상실의 슬픔을 딛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나가는 이야기.

- * 아이들의 목소리는 바로 그들 어머니의 삶과 노래였다. 미완인 채로 남아 있다. 아름답다. 이 모든 것이.

* 165page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나에게

타이완 청춘들의 롤모델 아이열원이 제시하는 자기위안의 기술. 나에게 건네주는, 힘든 나를 토닥이고 응원해 줄 따뜻한 말 한 마디.

- * 오늘 일어난 불행을 내 인생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쓰러지지만 앓는다면 나쁜 일엔 언제나 유효기간이 있다. 하지만 계속 휘둘린다면 나쁜 일은 잠깐이 아닌 평생이 될 거다. 분명한 건, 내가 인생의 중심이 되면 나쁜 일은 언젠간 지나간다. 멈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나쁜 일은 당신에게서 점차 멀어져 가고 좋은 일이 당신을 찾아올 거다

* 9page



당신의 특별한 우울

우울증에 걸린 정신과 의사가 들려주는 환자들의 각양각색 다른 우울증을 다룬 따뜻한 이야기.

- * 기분이 가라앉은 사람은 색안경을 쓰고 삶을 바라본다. 남들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판단이 흐려진다. 흔히 ‘긍정적’ 사고를 하라고 하지만, 그마저도 스스로를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다.

* 13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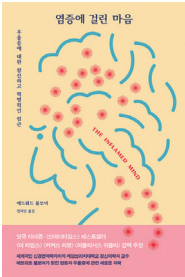


힘들 때, 지칠 때

코로나 집콕 시대 대면상담마저 쉽지 않은데 나의 심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제 내가 스스로 치유한다! 신체적인 징후로 잡아내는 나의 내면 문제 접근법.

- * 인간의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는 '자학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발견한 변화 과정은 신체에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몸이 알아서 느끼게 된다. 평소 에 고통이 느껴졌던 곳보다 깊은 곳에서, 처음에 막연히 신체적인 감지가 있었던 곳으로 중요한 움직임이 이동한다 .그곳에서 무언가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경험은 안도감과 활기를 느끼게 해준다.

* 18p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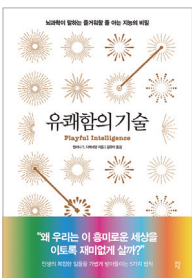


염증에 걸린 마음

우울증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 우울증은 마음의 감기가 맞다! 스트레스가 감기 바이러스처럼 뇌에 염증을 일으켜 우울증을 일으킨다는 신경면역학 이론을 소개한 책.

- * 최근 MRI 연구들은 몸의 염증이 인간 뇌의 활동과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를 내놓기 시작했다. (중략)백신주사를 맞은 사람들은 약간 우울한 상태가 되는데, 백신접종 이후의 이러한 우울감은 감정 표현을 담당한다고 알려진 뇌 영역들이 대단히 활성화된 것과 관련이 있었다.

* 41page



유쾌함의 기술

스트레스로 가득한 세상에서 잃어버린 유쾌함을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유쾌함도 지능이다! 노력으로 키워나가는 즐거워할 줄 아는 지능의 비밀.

- * 인생에서 겪는 일들을 지금보다 더 가볍게 받아들이고 유쾌하게 살아가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에게 고통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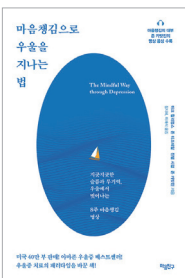
* 34page

#우울감 #우울증

#코로나블루 #마음의감기

#위로 #집콕

반년을 훌쩍 넘긴 코로나19 시대, 기나긴 집콕생활로 몸도 마음도 지치셨죠?
우울감, 무기력감, 두통, 소화불량, 불안감, 불면증, 짜증의 파도에 이리저리 휩쓸리는 여러분들께 세상에 많고 많은 책들 중 우울감 퇴치를 위한 책을 쏙쏙 뽑아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해 보아요.



마음챙김으로 우울을 지나는 법

우울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8주간의 마음 챙김 명상 프로그램. 명상 수련을 차근차근 따라가며 나의 우울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들여다보는 시간.

- * 우울은 아프다. 우울은 삶의 기쁨을 빼앗는 한밤의 검은 개다.

* 5page

- * 상실은 인간이 처한 불가피한 조건이다. 우리 대부분은 엘리베이터처럼 위기를 겪고 나면 삶이 커다란 시련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

* 27page



외국도서관 탐방이야기

살라망카

글 허지은(청주시립도서관 사서)

Salamanca

살라망카 Salamanca



유럽의 남서쪽 끝,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한 나라 스페인!
그곳 남부의 주, 카스티야레온 지방에 포르투갈과 접경하여 있는 주인 살라망카는 인구 36만 2,000명, 북쪽은 고원, 남쪽은 산지이며 도우로 강이 관류하고 있다. 살라망카는 토르메스 강 북쪽 기슭의 해발 778m 지대에 자리잡고 있으며 스페인에서 가장 유서 깊고 예술적인 도시이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구대성당(12세기), 허안 힐 데 온타논에 의해 건립된 고딕양식의 신 대성당과(16세기) 기타 중세기 말부터 근대 초기에 세워진 건물들이 많이 남아 있다. 살라망카 도시에 도착하여 도시의 낭만적인 분위기에 취하여 걷다 보면 눈에 띄는 건물이 있다. 그곳이 살라망카 공공도서관이다.



살라망카의 명물 조개의 집

Casa de conchas

살라망카 공공도서관

Biblioteca Public de Salamanca



도서관의 따뜻한 이미지의 붉은색 벽돌로 이루어진 벽면 전체를 바라보면, 산티아고 기사단의 상징인 가리비 모양의 장식이 374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 건축물은 스페인 고딕 양식의 뛰어난 사례 중 하나이며, 카톨릭 군주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로 손꼽힌다고 한다. 살라망카 공공도서관은 기존에는 산티아고 순례자를 수호하는 기사가 살았던 집이었던 건물로 1493년 짓기 시작하여 1618년 완공되었으며, 1993년 11월 리모델링하여 현재는 공공도서관으로 사용하고 있다.

공공도서관으로의 변경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은 Victor Lopez Cotelro와 Carlos Puente에 의해 진행되었으며, 건물의 새로운 기능에 필요한 필수 요소들의 적절한 구성을 고려하여 전통적인 도서관과 협업하였다. 건축물 천장의 나무들과 벽의 부드럽고 하얀 질감은 따뜻하고 집과 같은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 지역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의 노력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돋보이는 외관에서 느낄 수 있듯이 살라망카 공공도서관에 들어서자 예술적이고 아름다운 그림들이 먼저 우리를 맞이하였다.

지역 공공도서관으로서 살라망카 지역 내의 음악가, 영화 예술가들의 콘서트와 전시회 등 광범위한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지역주민들에게 꾸준히 선보이고 있었으며, 예술가와 공동으로 연가 전시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시하는 전시 공간을 별도로 두고 있어 그림, 조각, 설치예술, 사진 등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음악의 보급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어 꾸준히 콘서트와 음악교육을 제공하며 영화나 음악작품을 선정하여 영화대본, 촬영기법, 의상 등을 전시함으로써 예술분야의 폭넓고 깊이 있는 지식을 이용자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모습들이 돋보였다.





살라망카 공공도서관은 어린이에서부터 성인까지 지역 주민 누구나를 위한 도서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계층별 프로그램 제공으로 토론회 및 독서클럽을 운영하여 주민들이 독서를 더욱 가깝게 여기고 일상의 필수 요소로 자리 잡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다.

또한 도서관에서는 토론과 독서클럽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개방적으로 다양한 인종과 지역의 사람들로 구성된 토론자들의 정기 모임을 통하여 도서관이 만남의 장소가 되게끔 개방하고 있었으며 도서관이 아고라의 역할을 하고 공동체를 세우는데 도움이 되도록 공공장소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책을 중심으로 매주 사람이 만나고 문학작품을 읽어 다른 회원들과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여타 도서관들과 다르지 않았다.

독서클럽의 목표는 주민에게 독서를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구성원들 간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공유하고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만남,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제공하는데 공을 들이고 있었다.

이점이 도서관에 처음 방문했을 때 우리를 맞이하였던 사서관장과 사서들의 열정이 느껴지는 부분이었다. 누구에게나 개방되어있으며,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그들에게 더욱 가까이 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도서관의 역할로 여김으로써 다양한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살라망카 공공도서관의 경영철학을 엿볼 수 있었다.



‘도서관은 책을 위한 곳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곳이다’



처음 도서관을 향해 내딛던 발걸음을 멈추고 바라본 살라망카 도서관의 외관에서 알 수 있듯이 마치 미술관인 듯 박물관인 듯 착각할 정도의 아름다운 도서관이었다. 비록 웅장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구석 구석 아기자기한 이용자 맞춤형 공간을 구성하여 모든 사람들을 위한 개방적인 도서관의 역할을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스페인 도서관은 오래된 전통을 살려 함께 보존해 나아갈 뿐만 아니라 이용자 편리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현대적 방식을 도입하고 미래 지향적인 사회 변화를 수용함으로써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우미 돋보이는 곳이었다.



살라망카 공공도서관은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면서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IT 기술 산업의 발전에 맞춰 최첨단 전자 도서관의 구축 등 최신식 시설을 갖춰 편리성을 극대화 하여 변모하는 바와 다르게 스페인 도서관은 전통의 멋을 간직하며 그 곳에서 풍기는 스페인인들의 옛스러움과 자연스러움으로 도서관 구석 구석에 살아 숨쉬는 듯 하였다.

우리도 이러한 전통을 살리려는 살라망카 도서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전통은 살리고 영구보존하고 옛 것을 되살려 새롭게 발전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보는 것은 어떨까.

스페인에서 우리가 찾은 ‘살라망카 공공도서관’은 전통과 현재가 조화롭게 엮인 매력적인 도서관으로 표현하고 싶다. 아름다운 외관과 그 안에 사서들의 노력이 깃든 조화로운 도서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찾고 싶은 곳으로 남는다.

도서관을 모두 둘러보고 나올 때는 마치 18세기 고전 여행을 마친 느낌이었을까 그곳에 살라망카 도서관 사서들의 열정과 노력이 더해짐으로써 그 곳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던 순례자들의 숨결과 정취에 함께 취해 볼 수 있었던 시간여행을 한 듯 하다.



푸름이 베란다 의사

글 정미향 님(상당구 용담동)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조금씩 안정 되어가던 6월 즈음, 갑자기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고도에 오르는 것처럼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잠깐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며칠이나 계속되기에 덜컥 겁이 나서 이비인후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귀 안은 예상과 달리 깨끗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염증이 있을 수 있다는 결론으로 이들의 약을 처방 받아 복용했습니다. 그러나 처방약은 전혀 효과가 없었고 다시 병원에 들러 여러 가지 청력 검사 끝에 생각지 못한 결과를 듣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청력까지 영향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약을 처방 받아 일주일 가량 복용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참고 말하지 못했는데 코로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구나! 흔한 감기도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과 사람들 많은 곳은 피해야 된다는 생각이 나를 힘들게 했구나!’ 하면서 코로나 이전의 일상을 그리워하며 마음의



병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내려놓기가 힘들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되고 나니 나 스스로가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굳이 외출하지 않고서, 누군가를 만나지 않고서도 좋아할 수 있는 두 가지 - 그 첫 번째는 ‘책’, 그리고 두 번째는 ‘화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문득, 유명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나오는 방송을 통해 코로나 시국인 요즘 ‘베란다 인테리어’가 대세라는 것을 접하고 나도 시도해 보면 어떨까 하며 필요 없는 물건으로 방치되어 있던 베란다는 책과 화분으로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방치된 물건을 치워내면서 조금씩 변하는 베란다 공간을 통해 답답하게 막혔던 귀가 들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약을 먹는 일주일 간 짬이 나는 대로 베란다는 책과 화분으로 꾸며 나갔고, 베란다가 새롭게 완성될 무렵에는 독서의 시간과 함께 마음의 안정도 얻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의 귀도 정상으로 돌아왔고요.

처방된 약과 함께 베란다 공간의 변신이 가져다 준 치료를 받은 셈이지요. 어지럽게 방치했던 물건들은 나눔을 통해 새 주인을 찾게 되었고, 저는 새로운 공간과 청력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게다가 화분이 뿜어내는 푸름 속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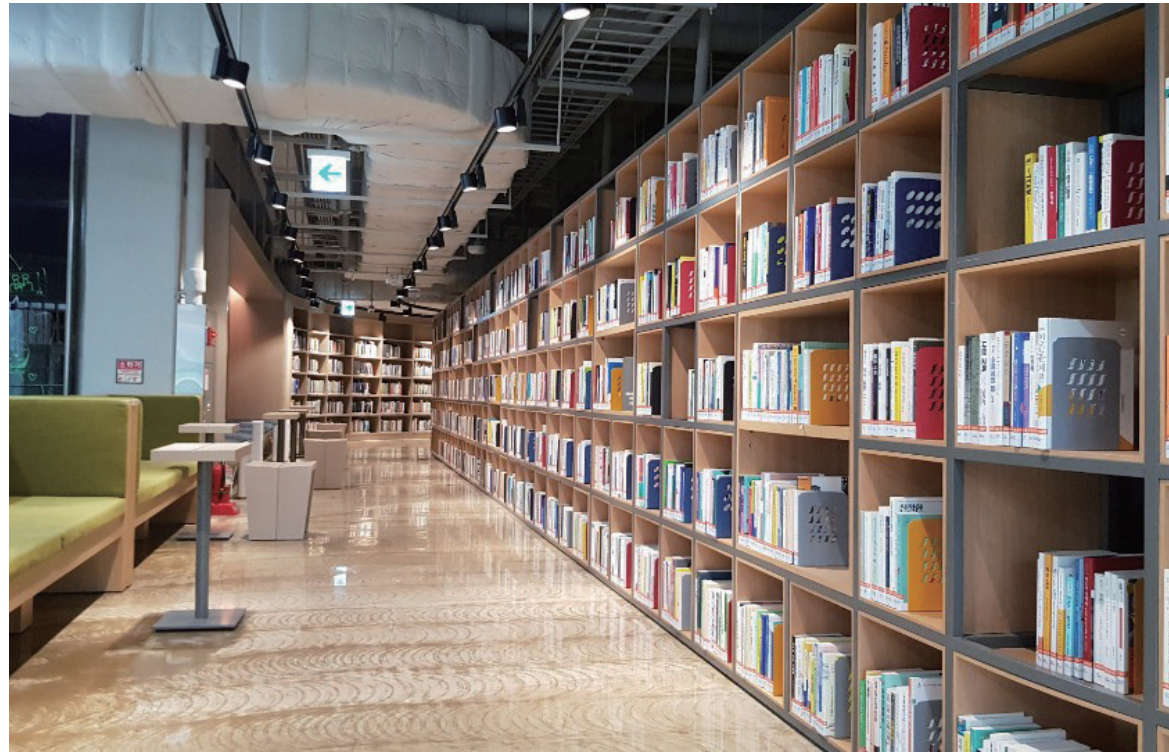
서 책을 읽는 기쁨은 덤으로 얻게 되었고요.

지금은 대한민국, 아니 전세계 어디나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영화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 요즘입니다. 전쟁보다 무서운 바이러스가 삶을 집어삼킨 이 시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지 물을 표를 던져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을 잘 견딜 수 있는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과 자신의 공간을 찾는 일이라는 대답을 찾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앞으로도 꽤나 오랫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시간을 자신의 시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자신만의 공간을 만들어 알차게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지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끔찍대느니보다 이 위기의 시간을 오롯이 자신만의 시간으로 색다르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오늘도 그래서, 서재에서 책 한권을 뿜아 들고 푸름이 의사를 만날 수 있는 저만의 베란다로 가고 있습니다.





책으로 소통하는 열린공간 ‘청주열린도서관’

혹시 청주열린도서관을 알고 계신가요?

청주시 청원구 내덕 2동에는 과거 청주시민 열 명 중 한 명의 생계를 책임지던 청주연초제조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담배에 대한 인식이 나빠지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었는데도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내덕2동은 자연스럽게 쇠퇴한 구도심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청주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함께 재생하는 도시 재생 사업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구 연초제조창 건물은 다양한 변화를 거치며 최종적으로 문화제조창 C로 변모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 청주시민들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청주시민의 생계를 책임지는 공간이었지만 지금은 청주시민의 마음을 풍요롭게 채워주는 복합문화공간으로 변모하게 된 것이지요.

청주열린도서관은 어떤 공간일까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도서관이란 무엇인가요. 책을 읽는 고요한 공간, 책을 빌려주는 감사한 공간,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지식을 얻을 수 있고 고요한 공간 속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아닐까요?



문화제조창 C

청주열린도서관은 일반적인 도서관과 조금 다른 장점을 갖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방문한 시민들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책을 읽고 토론하고,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앉아 소리 내어 책을 읽고, 다른 한편에는 음악 감상을 하며 독서를 할 수 있는 조금 소란스럽지만 자유롭게 책이라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청주열린도서관은 청주시 문화산업진흥을 목표로 설립한 문화제조창 C에 위치 해있습니다. 1층에 오시면 쇼핑몰, 카페 등 평범한 쇼핑몰과 비슷한 모습을 보여 주지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오다 보면 둥글게 우리의 마음을 감싸주는 복타워가 4층까지 이어집니다. 천천히 구경을하며 3층에 오면 한국공예관의 아름다운 공예품들이 우리의 눈을 호강시켜주고 다시 에스컬레이터를 올라 5층에 올라오면 청주열린도서관이 시민들을 반겨줍니다. 문화제조창C는 청주시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문화시설과 상업시설의 조화로운 배치로 시민들의 편안한 휴식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왜 청주열린도서관에 방문해야 하나요?

1 365일 운영하는 전국 유일한 도서관!

청주열린도서관은 언제나 운영 중입니다. 1월 1일에도 설날, 추석에도 크리스마스에도 항상 운영 중인 365일 열린도서관입니다.

2 매주 행사가 있는 도서관

평일에는 독서문화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주말에는 동화 구연, 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가 항상 진행되는 도서관입니다.

3 언제든지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항상 깨끗하게 관리하고 언제든지 원하는 책을 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4 다양한 큐레이션을 운영하는 도서관

청주열린도서관은 크게 두 가지 종류의 큐레이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① 온라인 큐레이션

매월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매주 두 번씩 온라인 플랫폼 유튜브에 온라인 큐레이션 영상을 업로드 하여 시공간의 경계를 넘어 시민여러분의 독서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큐레이션

청주열린도서관 큐레이션은 주제별 큐레이션, 사서추천도서, 베스트셀러 세 가지를 서비스 하고 있습니다.

- 주제별 큐레이션은 매월 각각 다른 주제의 큐레이션 도서를 선정하여 시민여러분들의 독서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매월 홈페이지에 업로드 됩니다)
- 사서추천도서는 사 서들이 흥미롭게 읽은 책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공유하여 함께 교감을 나누는 코너입니다.
- 베스트셀러는 매월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추어 시민들의 관심과 국내외 화제가 되고 있는 도서를 큐레이션하는 코너입니다.

앞으로
청주열린도서관은...

365일 시민들이 책과 함께 휴식하는 시민의 휴식처이자 문화 놀이 공간으로 기능하고 아이들과 성인들이 함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시민 문화학교로 발전해 나가며 시민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찾고 싶어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토록 어여쁜 아이들 「책 읽는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사진이라는 매개를 통해 일상생활 속의 독서를 표현하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독서의 모습을 순간 포착해 추억으로 남깁니다. 내년에도 책을 통해 상상하고 더 크게 자라나는 “책 읽는 우리 아이”모습을 사진 콘테스트를 통해 참여해주세요!

2020 오송도서관 「책읽는 우리 아이, 사진 콘테스트」 수상작



최우수상

씩~쓰리 독서 생활 - 민재현님 가족



우수상

넘치는 자유 - 고은미님 가족



우수상

그 여름 바닷가에서 - 반재숙님 가족



장려상

걸음을 멈추고
- 임혜라님 가족



장려상 혼자서도 척척하는 어린이가 될래요!
- 박수현님 가족

우수상

아이와 eye
- 정미향님 가족



장려상

전지적 아버지점
: 247일
- 양무중님 가족



장려상

돌 아기의 책 보기 - 최상록님 가족

장려상

독서 할 때 당신은 항상
가장 좋은 친구와 함께
있다
- 조용미님 가족



